

4 3 (2010 5·6)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2010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5 May 2010

❶ 주차_05.01-05.09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24
	3. 대남 25
❷ 주차_05.10-05.16	1. 대내 2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3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35
❸ 주차_05.17-05.23	1. 대내 3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42
	3. 대남 43
❹ 주차_05.24-05.31	1. 대내 5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5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52

인쇄: 2010년 7월 발행: 2010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정재은·최재령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6 June 2010

❶ 주차_06.01-06.06	1. 대내 7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75
	3. 대남 77
❷ 주차_06.07-06.13	1. 대내 8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92
	3. 대남 94
❸ 주차_06.14-06.20	1. 대내 10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07
	3. 대남 108
❹ 주차_06.21-06.27	1. 대내 11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23
	3. 대남 127
❺ 주차_06.28-06.30	1. 대내 13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3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35
■ 5월 일지 / 138	
■ 6월 일지 / 140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5.01-05.09

5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영일, 노동절 행사서 “南근로자들과 연대”(5/1, 조선중앙통신)**
 - ‘5.1절’(노동절) 12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반미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근로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보도
 - 김 내각총리는 이날 평안북도 신의주시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오늘의 인민생활 대고조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과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말할.
 - 유압식 굴착기 등 건설 및 광산 관련 중장비를 생산하는 락원기계연합기업소는 김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현지지도 한 곳으로, 올해 북한이 ‘희천속도’를 내세우며 노력동원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현장에 굴착기를 공급
 - 이날 보고대회에는 로두철 내각부총리, 김병팔 조선직공 중앙위원장, 조병주 기계공업상, 평안북도의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책임일꾼들 등이 근로자들과 함께 참석
 - 한편 중앙통신은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국가 간부들도 국가과학원,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 지방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현지 근로자들과 체육오락행사를 가졌으며, 또 평양의 대성산 남문 앞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이, 개선문 광장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이, 만경대 유희장에서는 평양교예단이 각각 공연
- **김정일 방중입박 징후…단둥엔 긴장감 /**
랴오닝 성장 단둥역 진입…1급 경비(5/2, 연합뉴스)
 - 北 김정일 방중 예상경로: 평양-신의주-단둥-선양-베이징
 - 중국 랴오닝(遼寧) 성장을 비롯한 성 지도부가 2일 오후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의 역사에 진입, 노동절 황금연휴가 시작된 1일부터 2일까지 단둥

- 시에선 공안국이 1급 경비체제를 가동, 경비를 강화하고 압록강변 호텔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
- 단동의 한 소식통은 “천정가오(陳政高) 라오닝 성장과 부성장급을 포함한 성 지도부 5~6명이 이날 오후 3시께 단동에 도착, 지도부 전용 호텔인 단동 빈관을 거쳐 단동 역사에 오후 5시께 진입했다”고 전함.
- 단동의 다른 소식통은 “단동 공안국이 1급 경비체제를 가동, 단동역 등 주요 시설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투숙객을 철수 시키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실제 이날 오후 5시부터 단동 역 광장에 경찰 차량 5대와 경찰관 20여 명이 배치돼 차량 출입을 막는 등 경계가 대폭 강화됨.
- 압록강 철교인 북중 우의교 주변에도 이날 오후부터 경찰과 군인들이 배치, 단동 역사와 붙어 있어 역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단테(丹鐵)호텔은 이날 출입이 봉쇄돼 직원들조차 출입을 못하고 있음.
- 북중 우의교가 가장 잘 보이는 중련호텔도 1일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돼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있다. 또 투숙객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받아둔 예약도 취소, 1층 카운터와 커피숍에서는 20여 명의 경찰이 서성이는 장면이 목격됨.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 1~2일 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예약을 받지 않았음.

● 北, 김정은 기념우표 발행 계획(5/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에 대한 기념우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RFA가 최근 방북 취재활동을 했던 독일의 대외 공영방송인 ‘도이치벨레’의 페터 쿠야트 동아시아 특파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
-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북한)-독일우호협회’ 주선으로 북한 취재에 나섰던 쿠야트 특파원은 이 방송과 회견에서 “조선우표사 부국장이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 기념우표의 발행 계획에 대해 확인해 줬다”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북한측이 김정은 후계 문제를 공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그렇지만 조선우표사 부국장은 기념우표의 발행시기와 관련, “‘시간이 걸린다’면서 언급을 피했고, 김정은 승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고 쿠야트 특파원은 밝힘.

● 김정일, 대청해전 직후 ‘바다의 결사대’강조(5/5,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서해 ‘대청해전’ 직후 서해함대사령부를 시찰 하면서 전투함선에 직접 승선, 무기와 전투기술의 현대화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
- 조선중앙TV는 78주년 ‘건군절’(인민군 창설일 4.25)을 기념해 4일 밤 장성과 장교 등 여러 군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기념무대’를 지난달 25일에 이어 재방영함.
- 서해함대사령부 군관(장교) 김광일은 무대에 올라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에 부대를 찾아 정박한 함선에 오르신 최고사령관동지(김정일)께서는 함선의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화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힘.
- 특히 김광일은 당시 김 위원장이 다른 함선에도 올라 해군들의 훈련을 지켜본 뒤 “동무들은 내가 왜 이 부대에 자주 오는지 아는가. 그만큼 최고사령관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 바다의 결사대 영웅들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그는 “작년 말 북방한계선 고수를 운운하며 날뛰던 6척의 적(남한) 함선 무리를 징벌했다”며 대청해전 승리를 재차 주장
- 육·해·공군 훈련에 참석했던 포병부대 지휘관 정상환은 “당시 우리 포병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적들을 불바다속에 처넣어 잿가루로 만들 기상을 안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는 목표들에 무자비한 명중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말함.
- 이어 “국방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며 대구경포들이 연방 불줄기를 뿜었고 비행기,함선들이 적 집단에 화력 타격을 진행했는데 생명체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할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이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진짜 전쟁맛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무지막강한 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일대 시위였다”고 주장

● 北김정일, 방중 후 첫 공개활동…공연관람(5/9, 조선중앙방송)

- 중국 방문(5/3~5/7)을 마치고 귀환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울림’을 다시 관람했다고 북한의 언론매체가 보도
- 김 위원장의 이번 공연 관람은 방중 후 첫 공개활동이며, 앞서 지난달 27일

-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수 천리에 달하는 먼길을 오가시며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시어 조·중 친선의 강화 발전의 공헌을 하신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라고 전함.
 - 경희극 ‘산울림’은 식량증산과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활동을 주제로 1960년대 창작된 작품으로, 이번에 국립연극단이 재창작함.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

【김정일 訪中 관련】

1)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확인 행로

● 5월 3일(월)

- 오전 5시 20분, 단둥(丹東)을 통해 중국에 넘어옴.
- 오전 10시 40분, 다롄(大連) 도착, 푸리화(富麗華) 호텔을 투숙지로 잡음.
- 오후 2시, 6시(방추이다오에서 중국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보임), 9시(갑자기 호텔에서 나와 밤 바다 구경을 한 뒤 40분만에 들어감) 등 3차례에 걸쳐 외출

● 5월 4일(화)

- 오전 9시 30분, 푸리화(富麗華) 호텔을 떠나 30km 떨어진 다롄경제기술개발 구에 도착. 이곳에 건설 중인 제3부두(40만m² 규모의 이 3호 부두는 컨테이너 적재, 보세물류, 자동차 선적 등을 하는 부두)를 시찰
- 오전 11시, 호텔로 돌아옴.
- 오후 4시,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숙소를 나섬.
- 오후 7시, 다롄역 출발

● 5월 5일(수)

- 오전 8시, 텐진(天津)도착
- 오전 8시~9시, 시 외곽의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시찰
- 오전 11시~오후 2시, 주요 수행원들과 함께 시내로 돌아와 수정궁 호텔 인근의 영빈관에서 텐진시 주요 인사들이 베푼 환영 오찬에 참석
- 오후 3시 40분, 베이징 도착
- 오후 4시 50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漁臺) 도착
- 오후 5시 10분, 인민대회당으로 향함.
-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북·중정상회담
- 오후 7시~오후 10시, 환영만찬
- 오후 10시 25분, 다오위타이(釣漁臺) 도착

● 5월 6일(목)

- 베이징 외곽의 창핑(昌平)구 소재 중관촌(中關村) 생명과학원을 다녀온 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오찬
- 오후 4시 30분, 베이징역 출발

● 5월 7일(금)

- 오전 9시, 선양에 도착, 영빈관에 머물다 부근에 있는 항미원조열사릉(抗美援朝烈士陵)을 찾아 6.25에 참전한 중국군인들의 넋을 기림.
- 오후 1시, 랴오닝(遼寧)성 성도인 선양(瀋陽)에서 승용차 편으로 국경도시인 단둥(丹東)으로 출발
- 오후 3시55분, 단둥(丹東)의 북중 우의교를 넘어 귀국길에 오름.

2)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기사보도

● 北, 김정일 방중보도…정상회담 언급안해(5/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나흘만인 7일 오전 방중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 보도
- 이들 매체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와 텐진(天津)시를 방문해 현지 산업시설을 둘러본 소식만 전하고, 베이징(北京) 방문 및 후진

- 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 중앙통신은 오전 9시 2분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후진타오) 동지의 초청에 의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해 동북 지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셨다.”고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커창(李克強) 부총리의 영접을 받으면서 다롄시를 방문해 대련빙산그룹, 대련기관차생산공사, 요령어업그룹, 대련설 룡산업그룹 등을 참관하고 왕민(王珉) 라오닝 당서기, 천정가오(陳政高) 라오닝성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즈쥘(劉志軍) 철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 부총리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
 - 텐진에서도 장가오리(張高麗) 텐진 당서기, 황싱궈(黃興國) 시장 등의 안내를 받으면서 텐진항을 시찰하고 연회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8천리에 달하는 중국 동북 지역을 오가시며 중국 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요해하셨다.”면서 “이번에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 방문은 호금도 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노동당의 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원회 국장,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

● 수행자 면면 보니…당·군 실세 총출동(5/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외자유치와 북·중경협을 위해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지방의 당 책임자들까지 총출동한 듯한 모양새였음.
- 군부에서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과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이, 노동당에서는 최태복·김기남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에다, 대중 외교 전담인 김영일 당 국제부장, 중국통이자 대남사업 책임자인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수행
- 또한 또 북한의 ‘대미 외교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지방에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도

동행

- 북한 군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춘 부장은 2000년 군 총참모장 시절부터 이번까지 김 위원장의 5차례 방중 가운데 앞선 4차례를 모두 수행한, 군부 내에서 유일한 인물
- 같은 군부 인물인 현철해 국장은 2001년에 이어 두번째, 리명수 국장은 처음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 현 국장은 2004년 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직책을 갖고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앞서 김정은·정철 형제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왕자 군교육’을 맡기도 함.
- 장성택 부장은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을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북한 권부 실세이며, 2008년 김 위원장의 와병 이후 지근거리에서 국정 운영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국방위 외교 참사를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양건 부장은 올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중국의 대북 투자유치를 이끌고 있었으며 2000년과 2001년에 이번까지 세번째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
- 6자회담과 대미 외교를 이끌고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한 것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간에 6자회담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음을 시사
- 김영일 당 국제부장은 북중 외교, 특히 북중간 정상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사전 답사했음.
- 김 위원장을 처음 수행한 최태복 비서는 현재 노동당 내에서 국제 및 과학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최근 ‘최첨단’을 외치며 과학기술 발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역시 처음 김 위원장을 수행한 김기남 비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인물이어서 눈길을 끄.
- 북·중 접경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김평해(평안북도)·태종수(함경남도) 두 당 책임비서가 수행한 것은 방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함.

● 김정일 ‘6자회담 유리한 조건 조성희망’(5/7, 신화통신)

- 관영 신화통신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이징 방문기간 후진타오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유관

-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북·중 양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 성의를 보이고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통신은 “북·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 후 주석은 북·중 간 우호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 고위층 교류 지속 ▲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정세 등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 경제무역협력 심화 ▲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인문 교류 확대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제안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5가지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고 “신압록강대교의 건설은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이라면서 “호혜공영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양국간 실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이 북한 노동당 업무의 중심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후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감사를 표시, 흔쾌히 방문초청을 수락
 -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별도로 회동,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데, 원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함.
 - 원 총리는 이어 “북·중 경제협력은 매우 큰 잠재력이 있으며 양국은 함께 노력해 중점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변경(국경지역)의 기초시설(인프라)건설과 새로운 영역과 방식을 통한 합작을 위해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권력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별도 회동을 가졌고 자칭린(賈慶林) 정협주석, 리창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허궈창(賀國強)·저우용강(周永康) 위원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과 각종 행사를 통해 모두

만남. 특히 후 주석은 6일 오전 김 위원장이 중관촌(中關村) 생명과학원을 방문할 때 직접 안내를 맡았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정일 訪中 북·중 정상 대화내용 정리(5/7, 신화통신; 연합뉴스)

◇ 후진타오 주석

-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해 주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한이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현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조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상하이(上海) 엑스포에 참가하고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북·중 전통 우의는 양당과 양국 인민들의 고귀한 재산입니다. 양국 우호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공통된 역사적 책임입니다.
- 최근 양국관계는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수교 60주년 양국 우호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양국 정치교류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합니다.
- 양국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통된 이익 수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촉진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 이를 위해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 첫째가 고위층 교류 지속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상호방문과 특사 파견, 구두 친서 전달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둘째로 전략적 소통의 강화입니다. 양국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 및 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경험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 셋째가 경제무역 협력 심화입니다. 양국 정부의 담당부처는 경험 심화를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 넷째가 인문교류 확대입니다, 문화,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 특히 청소년

- 교류를 강화해 양국 전통 적인 우의가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다섯째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북한이 안정 유지와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 김정일 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의 지휘 아래 국가건설 사업에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기원합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 초청해 주시고 열렬히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의하신 5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맺어 키워낸 전통적 우의 관계는 시대의 풍파와 시련을 겪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세대교체로 인해 앞으로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 작년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치른 양국 각계의 각종 경축 행사가 양국 우의를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 양국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 교류협력은 매우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합의한 신 압록강대교 건설은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입니다. 호혜공영의 원칙 아래 북한은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를 환영하고 양국간 실무 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희망합니다.
- 북한의 당과 정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각도에서 양국 관계를 수호하고 양국관계를 계속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 상하이(上海)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막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칭하이 위수 지진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난 데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에 올 때마다 중국인들이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룬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 중국의 발전은 북한 인민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격려가 됩니다.
- 북한에서는 각 분야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인민생활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당 업무에서 중심적인 임무를 차지합니다.
- 후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인들은 당의 집권능력 건설

- 과 과학적 발전관 실천, 조화사회 건설 등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관 당사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합니다.
- 중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공헌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北매체, 북·중 정상회담 뒤늦게 보도(5/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앞서 7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나흘만에 방중 사실을 처음 보도했지만, 베이징 방문 및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라오닝성 다롄(大連)시와 텐진(天津)시를 방문해 현지 산업시설을 둘러본 소식만 전했다.
- 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후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후 주석 간 상봉 및 회담이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됐다고 중국 언론에 보도된 양국 정상회담 내용과 두 정상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소개
- 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동북지방 방문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며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결심을 재천명했다고 밝힘.
- 북한 매체에 따르면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장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의 숙소를 찾아가 “양국관계를 새로운 높이에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고위급 왕래와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킬 용의가 있다”고 화답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김 위원장을 만나 특별히 경제무역협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동북지역 방문에서 중국의 발전 모습을 목격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조·중 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말함.
- 통신은 원 총리가 김 위원장을 환영해 연회를 마련했다며 연회에서 한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연설 전문을 공개함. 이어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선양(瀋

陽)을 방문해 송풍기유한공사, 선양제1공작기계공장, 역사유적인 북릉공원을 참관하고 랴오닝(遼寧)성과 선양시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으며, 방중 전기간 통행하면서 성심성의를 안내해준 왕자루이 등 중국 지도부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면서 단등을 통과했다고 전함.

- 통신은 “중국의 당 및 국가영도자들이 김 위원장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했고,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중국 당 및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일 변수’에 6자 행보 미묘한 차이(5/10, 연합뉴스)

- 중국은 ‘김정일 방중’으로 조성된 6자회담 재개 기류를 유지하는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기색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가급적 사태를 관망하며 신중한 모습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희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참가국들에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유연성과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 또 천안함 사건을 ‘불행한 비상사태’라면서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은 차분히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 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지적에 “정확히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모호성을 가미

3)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남한 전문가 의견

-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양국간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음. 후진타오 주석이 고위층 교류 지속, 전략적 소통강화 등 5개항을 제안한 것은 김 위원장의 후계구축 과정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준 것
- 특히 ‘전략적 소통 강화’ 대상에 ‘내정’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은 ‘내정 불간섭’

- 을 외교의 대원칙으로 증시하는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신뢰와 지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됨.
- 북한측 수행단이 경협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당과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짜여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처음 수행한 것은 신의주 특구와 함경남도 자원 개발과 연관됐을 수 있음. 김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특구인 다롄과 톈진을 방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나, 비교적 움직임의 폭이 넓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견재함을 과시하는 효과도 봤을 것 같음.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기존 논의선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봄. 북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보여줬던 수준의 대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지 말고 기존 트랙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음.
- - 김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특구 2곳을 방문한 것은 이번 방중의 초점이 경협과 해외투자 유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시사함.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과 주규창(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겸 국방위원)이 동행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협력 문제를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가 보장하겠다는 의미
-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고 봄. 북한이 6자회담 전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거론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에 양측이 노력과 성의를 다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김 위원장이 그동안 언급을 피해온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합의’란 표현을 쓴 부분도 주목해야 함.
- 후계 문제는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가 아니고 양 정상은 직접 논의하지도 않은 것 같음. 다만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후계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처음 수행한 부분은 의미가 있음. 앞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진 후에도 양국간 친선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
- 천안함 사건이 거론됐다면 북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이고 중국은 ‘두고 보자’는 정도로 답했을 것

- -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새로운 게 없음. 방중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중 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것이나 정상들이 만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수준
- 북한 매체가 정상회담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상함. 정상회담 결과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음.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정상이 후 주석을 잇따라 만나면서 중국이 뜻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북한이 느꼈을 수 있음. 중국이야말로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한 것 같음.
- 북중 경협에서도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음. 기존 수준 정도로 가지는 것이어서 김정일이 서운했을 수 있음. 이런 결과를 공식화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북한 매체가 방중 자체를 ‘동북 지역’ 방문으로 톤타운한 것

- - 북한과 중국 매체의 방중 보도가 서로 다른 것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음. 북한 매체는 방중의 전반부만 전하고 중국쪽은 전체적인 틀을 보도하는 것으로 분담한 것 같음.
- 가장 큰 부분은 6자회담임. 특히 김 위원장이 ‘유관 당사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6자회담 재개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표명한 셈. 후 주석이 전략적 소통과 국제·지역적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도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됨.
- 경협 부분에서 중국은 일방적 퍼주기보다, 소통과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는 형태를 요구했을 것이고, 북한은 경협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자고 요청했을 것임. 중국의 식량지원이 보도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식량 지원도 얘기가 됐을 것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보 공유(사전 통보)를 강조했을 수 있음. 후 주석이 ‘양국간 우호 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고 말한 대목은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최종적 입장이라기보다 ‘이해한다’ 정도의 언급으로 보임.

- - 북한과 중국의 보도가 다른 점이 눈에 띈. 양측이 모든 부분에 합의한 것 같지는 않음. 양쪽 모두 톤다운 하는 듯한 느낌도 주는데 북한쪽 기대가 잘 먹혀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중국 입장을 의식해야 할 김

위원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임. 경협도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기로 정부 차원의 약속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음. 아직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음. 이런 점들이 북한에게 불만일 수 있음. 가극 ‘홍루몽’ 관람이 무산된 것도 비슷한 맥락

■ 김정일동향

- 5/ 1 김정일, 노동절을 맞아 북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5.1절합동음악회’를 관람(5/2, 중방)
 - 발레리 수히닌 대사를 비롯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공연을 관람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수행
- 5/ 7 김정일, 5/3~5/7 정상회담차 중국방문(5/7, 중통)
- 5/ 9 김정일,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울림’ 재관람(5/9, 중통)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기자동맹대표단(단장: 이혁성 부위원장), 中國 방문차 기자편으로 평양 출발(5/5, 중방)

나. 경제

● 北무역은행 채무 변제 못해 美법원에 피소(5/5,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거래 결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뉴욕 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
- 대만의 메가인터넷서널커머셜뱅크(MICB)는 지난 2001년 8월 25일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 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14일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
-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15일 원고인 MICB와 피고 조선무역은행 측에 7일 까지 소송상황 요약서(status letter) 및 소송진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오는 17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요구서를 발송
-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MICB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 조선무역은

행은 당시 총 500만 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3년 후인 2004년 9월 15일까지 뉴욕 소재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통해 뉴욕 소재 MICB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기로 약정했음.

- 그러나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 이자 10만 달러, 이듬해 1월 이자 6만2천 달러, 2월에 원금 10만 달러, 4, 5월에도 각각 원금 10만 달러 등 모두 46만2천 달러 가량을 나눠 갚은 뒤 이후 추가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中 지린성 창바이, 北 변경관광 개통(5/9, 길림신문;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백산)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이 지난 1일부터 북한 변경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
- 외지인들도 바이산시나 창바이현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창바이 통상구를 통해 북한 변경관광 가능, 서류 접수 후 5일이면 통행증이 발급
- 백두산과 인접해 있고 북한 혜산과 마주한 창바이현은 2007년 통상구를 건설, 대북 교역을 시작했으나 북한 변경관광은 이뤄지지 않았음.
- 중국은 북한을 관광하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이 성행하자 2005년 북한 변경관광을 전면 중단시켰다가 지난해 4월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안투(安圖)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재허용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변 지역 변경관광과 북한 내륙 단체관광을 전면 재개

■ 기타 (대내 경제)

- 조선기록과학촬영소, 《락화생》·《키낮은 과일나무들》 등 과학영화 완성(5/3, 중통)
- 北, 중국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기념우표(무음전지 1종) 발행(5/4, 중통)
-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성을 집대성한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발행사업 진행(5/6, 중통)

다. 사회문화

● **WHO 사무총장 “北 보건의료 개선 인상적”(5/1, 연합뉴스)**

- 지난 26일부터 (일정을 하루 연기하여) 29일까지 방북을 마치고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복귀한 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WHO와 한국정부가 함께 북한 의

- 료 인력 및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신뢰 구축에도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고, 병원내 감염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공중보건상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 WHO가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과 말라리아 예방 사업 역시 개선됐다”고 평가
 - 북한 당국의 신종플루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좋은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전체인구 2천400만 명 가운데 10% 정도인 200여만 명 분의 백신이 북한에 공급됐다”고 밝힘.
 - 또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2008년과 2009년에 북한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함.
 - 그러나 “의료 관련 기간시설과 장비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품과 의료용품 등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북한 정부 역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영양실조 등의 상황은 최근 몇년 동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영양 개선과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에 좀더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 **월드컵 D-30, 44년만에 출전…북한도 뜨겁다(5/5,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북한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8강에 오른 잉글랜드 월드컵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 본선 진출이어선지 예상 밖으로 분위기가 고조
- 북한은 작년 6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귀환한 축구 대표팀을 위해 당·군·정 고위간부들이 총출동해,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었고 시내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인 뒤 평양의 유명 음식점인 옥류관에서 내각 주최 연회를 베풀었음.
- 북한 당국은 작년 말 화폐개혁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축구대표팀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 북한 대표팀은 작년 10월 프랑스 낭트에서 11일간 전지훈련을 했고, 1월초부터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35일간 전지훈련을 했음.

● **북한서 신석기 질그릇 가마터 발굴(5/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고고학자들이 황해북도 승호군 리천리 일대에서 신석기 시대

- 질그릇 가마터를 발굴했다고 보도
- 통신은 타원형으로 생긴 가마터의 중심에는 직경 125~145cm 가량의 화덕 자리가 발견됐으며 주변에서 당시 만들어진 질그릇 10개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고 전함.
 - 이어 형태와 크기,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가마터는 신석기 시대 중기인 약 6천500년 전의 것으로 추산돼 북한에서 발굴된 가마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임.
 - 또한 통신은 “세계적으로 드문 신석기 시대 질그릇 가마터가 대동강 유역에서 발굴된 것은 인류 문화의 발원지, 문화 발전의 중심지였던 평양의 역사적 지위를 학술적으로 보다 공고히 한 것”이라고 자평

● **北축구대표팀, 10일부터 스위스서 전지훈련(5/7, 조선신보)**

- 북한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후 여러 차례 해외 전지훈련에 나서 전력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5월 10일부터 스위스를 거점으로 강화합숙(전지훈련)을 진행한다.”라며 6월 초 ‘결전의 땅’ 남아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이어 스위스 전지훈련 기간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 진출팀인 그리스, 파라과이 대표팀과 평가경기를 치른다면서 북한 대표팀 주축인 정대세(가와사키)와 안영학(오미야) 선수도 합류할 예정, 또 북한 축구대표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문인국과 박남철 선수의 상태가 가장 좋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최근년간 발굴된 70여점의 유물들과 250여건의 사진들을 시기별로 나눠 역사유적유물전시회 진행(5/3, 중통)
- 제12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가자들, 5/3 만수대 김일성동상 참배(5/3, 중통)
- 북한 축구대표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 참가 위해 8일 평양 출발(5/8, 중통)

2 대외

● 고교무상화 놓고 조총련 내부 갈등(5/2, 산케이신문; 연합뉴스)

- 조총련(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
- 신문은 조총련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온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가 무산되면서 일본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선하자는 개혁파와 현재 교육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구파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고 전함.

● 이스라엘 “北, 이란에 미사일 밀수출” 비난(5/2, 연합뉴스)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면세 점이 되었다”며 이란에 미사일을 몰래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
-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무기가 북한에서 이란으로 유출된 뒤 다시 이란에서 레바논의 무장단체와 시리아로 옮겨지고 있다고 주장

기타 (대외)

- 김정일과 김영남, 이집트 대통령 ‘무함마드 후스니 무바라크’ 생일 82돌 관련 5/3 각각 축전발송 (5/3, 중통)
- 中 인민지원군열사가족 대표단(국방부 외사판공실‘관우비’소장), 5/3 평양 도착(5/3, 중통)
- 김영남, 5/4 駐튀르키예대사(에르도간 세리프 이스칸)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5/4, 중통)
- 러시아 정부, 5/4 김정일에게 ‘조국전쟁승리(8.15광복) 65돌’ 기념메달 수여식 駐北 러 대사관에서 진행(5/4, 중통)
 - 리을설, 김철만, 리종산, 황순희, 김옥순, 박경숙, 리영숙, 전순희, 리정인(항일혁명투사)에게도 5/4 기념메달 수여 및 이와 관련한 연회도 개최
-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5/4 귀국(5/4, 중방)
-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미술작품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5/6 駐北 쿠바대사관에서 진행 (5/6, 중통)

3 대남

- **북한산 청바지, 올 가을 남한서 선보여(5/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청바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스웨덴 의류업체 ‘노코진스(Noko Jeans)’가 올 가을 북한산 청바지를 남한에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함.
 - ‘노코진스’ 관계자를 인용, “북한산 청바지가 꾸준히 스웨덴에서 판매되고 있어 청바지를 더 생산하고, 스웨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 작년 12월 북한에서 만든 청바지 1천100벌을 스웨덴에 반입해 고급백화점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정치 쟁점화를 꺼린 백화점 측의 퇴출조치로 상품을 철수했다가, 이후 수도 스톡홀름의 점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시작
 - 북한 내에서 청바지가 대량으로 생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02년 삼성물산이 청바지 1만 벌을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해 ‘카운트다운’이란 브랜드로 남한서 판매했었음.

- **금강산 인원 철수…중국인 직원 귀환(5/2, 연합뉴스)**
 -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시설관리를 해온 중국인(조선족) 근로자 36명이 이날 오후 3시 30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
 - 현대아산 등의 한국인 직원 24명은 3일 오전 9시 40분께 귀환할 계획
 - 북한은 지난달 30일 금강산지구의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를 마친 뒤 “금강산관광지구에 16명만 남기고 나머지 관광관련 인원은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
 -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민간교역 축소,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며, 금강산 인원의 철수가 완료된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화의 절박성 부각시킨 보복론(5/3, 조선신보)**
 - 신문은 南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침몰’ 관련 “北관련설 여론몰이 등 대결정서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 전적으

- 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전함
- ‘北관련설’에 매달리는 南 보수세력은 함선 공격의 동기를 제멋대로 꾸미고 있으나 그러한 발상은 모두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라고 보도

● **징벌조치들은 연속 취해질 것이다(5/4, 민주조선)**

- 北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관련 南통일부장관의 ‘강력히 대처’발언, 남측의 ‘전쟁불사’론, 미군과의 ‘연합실사격훈련’ 등에대해 “보수패당이 지금처럼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며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단호한 징벌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매체, ‘황장엽 암살사건은 南자작극’(5/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할 목적으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이 밀파한 탈북자 위장간첩 사건에 대해 “터무니 없는 자작극”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대결에 미친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당국이 최근 ‘북한은 주적(主敵)’이란 개념을 부활시키려 하는 등 “남북 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황 전 비서에 대한 암살 사건을 사례로 꼽음.
- 매체는 “(남한)공안당국은 ‘황가 암살조 체포사건’이라는 터무니없는 자작극을 연출하고 대대적인 반공화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역대 친미정권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있지도 않은 모략극을 조작해 위기를 수습하려고 책동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
- 이어 “우리는 날로 엄중해지는 (남한당국의)대결소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대세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단호한 징벌이 내려질 것인지는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남측을 위협

05.10-05.16

5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성과 만족(5/11,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김성남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부장은 북한을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완벽하게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함.
 - 김 부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통역으로서 김 위원장을 수행

- **北, 김일철 국방위원...모든 직무 해임(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에 따라 김일철(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연령상 관계(80살)로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1부부장의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전함.
 - 김일철은 1982년 6월 해군사령관에 임명된 뒤 10년만에 그 자리에서 대장(1992.4)으로 승진했고, 차수(1997.4)를 달면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기용. 그 이듬해인 98년 9월 ‘김정일 체제 1기’ 출범과 함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에 올라 작년 2월 김영춘에게 넘겨줄 때까지 만 11년간 인민무력부장을 지냄.

- **김정일 방중일정 하루 단축(5/16, 아사히신문;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정을 단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이 불화로 종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함.
 - 당초 일정은 김 국방위원장이 6일 밤 베이징에서 북한 가극단의 공연을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관람한 뒤 7일 베이징을 떠날 예정

-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의 일정 변경의 배경에 북한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상황증거도 있다고 보도
- 중국 정부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설명할 때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중 국경의 교량건설 등에 약 3천만 달러의 무상지원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것
- 또 김 국방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예상했던 6자회담 예비회담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며,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의 내정을 포함한 정보교환 요청에 김 국방위원장이 흔쾌히 찬동했으나 북한 매체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부자연스러움.

김정일동향

- 5/11 김정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5/11, 중방)
- 5/13 김정일, 상서청년광산 등 “援軍美風”을 발휘한 일꾼-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5/13,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이번 비공식 訪中(5/3~5/7) 관련 北-中 관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이 굳건하고 위대하다”고 친선, 연대성 과시 및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 발전할 것” 강조(5/13, 중통)

나. 경제

● 北, 中기업에 인사·노무관리 등 탄광운영권 넘겨(5/1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최근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합작계약’을 맺으면서 인사, 자재, 근로방식 등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힘.
- 소식통은 “탄광의 노동자 숫자, 식량배급, 임금 지급, 자재 사용 등에서 모든 권한을 모두 중국 기업이 갖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탄광 내 기술, 행정일꾼 수를 대폭 줄이고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대거 늘렸다.”라고 소개
- 그는 “이 같은 합작 방식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임금과 식량배급이 보장될 뿐 아니라 최신 갱목 같은 자재가 투입돼 작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출근율과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함.

- 이 중국 기업은 기계설비와 자재, 자금 등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량 60%에 대한 소유권을 챙기며 탄광의 운용에 대해서는 탄광 당위원회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짐.

● 北, 1분기 對中무역적자 2억3천만 달러…51.6%(5/11,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의 올해 1.4분기 대 중국 무역적자가 미화 2억3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1억5천300만 달러)보다 51.6% 늘어났다고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은 이 기간 3억5천9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출은 1억2천700만 달러로 17% 줄었음.
- 월별로 북한의 수입은 1월 1억1천200만 달러, 2월 1억1천700만 달러, 3월 1억3천만 달러였고, 수출은 1월 3천600만 달러, 2월 3천500만 달러, 3월 5천600만 달러이며, 방송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15억 달러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평양 대성산 기술에 조성중인 평양민속공원 안에 한반도 모양의 인공섬 모습이 구글어스를 통해 드러남(5/15, 연합뉴스)

다. 사회문화

● 北식량난 ‘고난의 행군’ 때와 비슷(5/10, 자유북한방송)

- 방송은 중국 지린성의 자사 통신원을 인용, “중국에 건너온 북한 주민이 ‘며칠 전 장군님(김정일)이 중국에 갔다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식량 원조를 주지 않으면 무리죽음(떼죽음) 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몰래 두만강을 건넜다는 이 북한 주민은 또 “집집마다 뗏머리가 없어 풀죽으로 연명하는 상황이고 나물 캐는 여자들로 산이 뒤덮일 정도”라면서 “국경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지만 함경남도 단천같은 안쪽(내륙지역)은 정말 한심하다.”라고 방송에 말함.
- 이 주민은 “먹는 입을 열기 위해 남자들은 농촌동원에 스스로 나서기도 한

- 다.”라면서 “사람들은 북조선(북한)의 쌀이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은 전함.
- 한편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 통신원을 인용, “올해 농사를 위해 북한의 전 주민이 동원되고 있는데 황해북도의 경우, 5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농촌총동원 기간’으로 정해졌다.”라면서 “중학교, 대학, 군대 같은 비생산단위는 물론 생산단위도 농촌에 동원되고 있지만 식량과 부식물은 거의 자체 해결해야 한다.”라고 전함.

● **北량강도서 방화 추정 불 잇따라(5/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최근 북한 량강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정치사회적 불만을 품은 방화로 보고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방송은 복수의 량강도 내 소식통을 인용, “요새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살림집(주택)들이 여러 채 불타 보위부와 검찰이 수사에 총동원되고 있다.”라며 “당국은 사건의 단서를 찾기 어렵자 ‘내부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주민 동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힘.
- 이런 사건들이 북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달 17일 자정께 혜산시 혜산동에서 일어난 5층 아파트(70가구 거주) 화재라고 방송은 전함. 이 불은 김일성 생일(4.15) ‘특별경비주간’에 일어나 북한 당국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범인 검거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사건 현장에서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최근 방화사건이 관심을 끄는 것은 1998년 대량아사 사태 때 주민들의 무차별 방화가 이어졌던 기억 때문”이라며 “당시 량강도 예술극장과 도인민위원회 사무처 건물이 전소되고 도처에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건물이 소실됐다.”라고 말함.

● **北감독 ‘16강 자신 있다’(5/11, 조선신보)**

- 신문은 44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축구대표팀의 김정훈 감독이 16강 진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김 감독은 지난 8일 스위스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월드컵 본선의 조별 연맹전을 통과하는 것이 1단계 목표인데 강팀들과 대전이지만

- 배짱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개별 선수들의 육체, 기술 수준이 몰라보게 발전하고 팀의 전반적인 위력이 향상한 조건에서 결코 실현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함.
- 그는 또 본선 진출을 확정된 이후 10여 차례의 해외 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배짱을 가지게 됐다.”라면서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정대세(가와사키), 안영학(오미야), 량용기(베갈타 센다이) 3명의 재일동포선수들이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북한팀 주장 홍영조는 “우리 팀에 첫 경기는 매우 중요하다. 강팀인 브라질팀을 누르면 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고 그 후의 경기에서도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소감을 밝힘.

기타 (대내 사회·문화)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5/11일 개성에서 남·북·해외 실무 접촉을 가진 결과, 올해 6.15 10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5/12, 연합뉴스)
- 北 각지 농촌들, 벼모판 관리와 모내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5/10, 중통)
-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88)’ 출판(5/10, 중통)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이철자), 5/10 평양 도착(5/10, 평방)
- ‘모든 힘을 모내기에 총집중, 총동원하자’...“모내기는 한해 농사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며 畝民 제철 모내기 완료 독려(5/11, 노동신문)
- 北 중앙동물원, 아프리카 사자 1쌍 등 6종, 22마리 동물들 합류(5/11, 중통)

2 대외

가. 일반

- ‘담배밀수’ 北외교관, 스웨덴서 집유 석방(5/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박응식씨가 형기를 2개월 남긴 지난달 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보도
 - 방송은 스웨덴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씨가 4월 30일 집행유예 1년으로 석방됐다”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다시 집행유예를

신청했는데, 구치소에 6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졌다”고 전함.

- 박씨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된 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北, 美에 ‘평화보장체계 수립’ 재차 요구(5/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급선무’라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대결을 끝장내기 위한 급선무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
-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2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에게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신문은 또 “우리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라크와 같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쓰는지 오래됐을 것”이라면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은 우리나라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변

● **러시아 극동서 北노동자 2명 망명신청(5/13, 연합뉴스)**

- 북한 노동자 2명이 지난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와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러시아 보안 당국자들을 인용 보도
- 총영사관 담을 넘어들어온 이들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시설 건설 작업에 투입돼 러시아로 온 것으로 알려짐.
- 통신은 인근의 다른 건설현장에도 북한 노동자가 많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함.

● **北, 이스라엘 외무장관 ‘악의 축’ 발언 비난(5/15,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시리아, 이란과 묶어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없는 사실을 날조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을 감히 비방 중상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리베르만 장관의 발언은 “유대인 정착촌 확장으로 세계적 비난과

- 배격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을 모면하려고 나온 파렴치한 발언”이라며 그를 “유대 복고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비난, “우리 공화국은 어떤 대량 살육 무기 전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 리베르만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 방문 중 북한과 시리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이들 국가가 대량파괴무기를 생산·확산시키면서 세계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함.

기타 (대외)

- 스위스 여성대표단(단장 : 하그 카르만 그리스도교민주당 위원장), 5/11 평양 도착(5/11, 중통)
- 日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 5/11 귀국(5/11, 중방)
- 최태복(黨 비서), 5/12 駐北 新任 인도대사 프라타프 싱과 담화(5/12, 중통)
- 김영일(내각 총리), 스리랑카 新任 수상 디 엠 자일라트네에게 5/11 축전(5/12,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융합 기술 자체 개발(5/1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 성공은 발전하는 조선(북한)의 첨단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대 사변”이라고 보도
- 신문은 이어 “우리 과학자들은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면서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 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다”고 덧붙임.
- 신문은 또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새 에너지(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 기술은 오늘 세계 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다”고 자평함.

3 대남

- **北신문, 지방선거 反보수 대연합 촉구(5/15,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신문은 “자주·민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각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이 반보수 대연합을 형성해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시대에 역행하는 반역통치는 끝장 나와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보수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몰아내려는 각계의 지향과 요구는 일치하고 있으며 투지와 기개도 충천하다”며 “단결은 투쟁의 위력한 무기며 승리의 담보”라면서 이같이 말함.

- **軍, 천안함 ‘대북성명’ 검토…파장예고(5/16, 연합뉴스)**
 -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를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20일께 민·군 합동 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
 - 이는 곧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이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北함정, NLL침범…경고사격에 복상(5/16, 연합뉴스)**
 - 북한 함정이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하다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
 - 16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15일 오후 10시 13분께 서해 NLL을 1.4마일까지 침범, 연평도 서북방 8.5마일 해역으로 남하하다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30분만에 복상
 - 하지만 또 다른 북한 경비정이 47분이 지난 오후 11시 30분께 같은 해역으로 NLL을 1.3마일을 넘어와,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2차례 했으며, 북한 경비정은 9분만에 북한해역으로 올라감.
 -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기는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 천안함 사태 이전인 지난 3월의 침범 사례를 포함하면 올들어 두 번째. 작년에는 23차례

- 이상 침범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경비정은 이례적으로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에 ‘귀측 함정이 우리 해역에 침범했으니 즉각 이탈할 것을 경고한다’ 경고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짐.

● **北군부 뼈라 지속 땀 육로통행 차단(5/16, 조선중앙통신)**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16일 남측의 대북전단(뼈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
- 북측 단장은 이날 남한 군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조장·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북측 단장은 “남측은 대북심리전 전개가 불러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사태는 남측의 북남 합의 준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지난달 1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전단 살포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쌍방 군 합의의 위반이고 전면도전”이라며 남북간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안전 보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기타 (대남)**

- 금강산관광 파탄은 남북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南 괴뢰파당의 ‘고의적 모략책동의 산물’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5/10, 평방)
- 한나라당의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진보적 단체들을 위해 말살하기 위한 모략책동”으로 비난(5/11, 중방)
- 北남성 1명 서해 백령도로 귀순(5/12, 연합뉴스)

05.17-05.23

5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돌연 최고인민회의 소집(5/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함.
 -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개최,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두 달 만에 돌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것임.

- **北김정일, 긴장국면속 북부 산업시찰 행보(5/21,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량강도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16일 보도)을 시작으로 삼지연군·백암군(18일 보도), 혜산시·대흥단군(19일 보도)을 시찰했으며 뒤이어 20일에는 함경북도 어랑군의 어랑천발전소 건설장과 청진시의 청진토끼중축장, 관모봉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한 것으로 전해짐.
 - 이어 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를 방문한 사실을 전함. 또한 통신은 이날 새벽 김 위원장이 함흥시에 위치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함흥시내를 돌아봤다고 보도한 데 이어 저녁에는 그가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찾았다고 전함. 김 위원장은 함흥시 시찰에서 도시 건축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짐.
 - 시찰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리제강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외에 현철해·리명수 국방위원회 국장이 수행

■ 김정일동향

- 5/16 김정일, 양강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5/16, 중통)
 - 김히택(양강도총 책임비서), 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주규창·리제강(제1 부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5/18 김정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감자농장(양강도 백암군 덕포지구)과 삼 지연군 여러 부문

- 사업(김일성 동상과 삼지연 대기념비, 삼지연 장공장) 현지지도(5/18, 중통)
- 김희택(양강도초 책임비서), 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주규창·리제강(제1 부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5/19 김정일, 혜산시 혜산강철공장·신발공장·김정숙사범대학 등 현지지도(5/19, 중통)
- 김희택(양강도위 책임비서),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부장들), 주규창·이제강(제1 부부장들),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들) 동행
- 5/19 김정일, 대흥단군(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대흥단을 및 새로 건설된 국수집) 현지지도(5/19, 중통)
- 김희택(양강도위 책임비서),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부장들), 주규창·이제강(제1 부부장들),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들) 동행

나. 경제

● 北-中 경협 본격화되나…北인사 잇단 방중(5/21, 연합뉴스)

- 21일 중국의 외교 소식통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따르면 북한 라진항의 배호철 항장이 지난 19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방문, 강호권 훈춘시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짐.
-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라진항은 뛰어난 지리적 조건을 갖췄으며 바다 진출을 원하는 훈춘시의 전략 거점”이라며 “창리(創立) 등 중국기업들이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 항로 개척을 추진 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배 항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지도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 양국 변경지역의 협력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뒤 “훈춘시의 라진항을 통한 바다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힘. 이어 그는 “라진항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과 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임.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역대 최대규모 개최(5/22, 단동신문망(丹東新聞網))

- 신문은 제13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람회가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보도
- 이어 신문은 지난 17~20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전람회에 중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16개국 기업이 참가, 전자와 기계제조, 방직 의류, 농산품, 석유화학, 자동차 및 차량부품, 가전제품 등 모두 324

- 개의 부스를 운영했다고 전함.
- 중국 기업들은 전람회 324개 부스 가운데 57%인 186개 부스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신의주 접경인 단동의 기업들이 78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단동시 경제무역대표단은 또 전람회 기간 오수용 북한 내각 부총리와 이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 이학권 북한상회 회장 등과 면담, 북한과 단동시 간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가을 단동에서 ‘대북한 수출입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기타 (대내 경제)

- 제13차 평양 불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5/17~20, 3대혁명전시관) 관련 200여개표준전시장과 특수전시장, 야외전시장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각국 대표들의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를 통한 상품수출입계약 체결 등 선전(5/19, 중통)

다. 사회문화

● 조총련 3총사, 20일 北대표팀 합류(5/19, 조선신보)

- 신보는 일본프로축구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가와사키), 안영학(오미야), 량용기(센다이)가 20일 일본을 떠나 유럽 전지훈련중인 북한 축구 대표팀에 합류한다고 전함.
- 신문은 정대세가 18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에서 열린 환송모임에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을 꿈꾸고 축구를 해왔다”며 “재일동포들이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 北, 각지 사찰서 부처님오신날 법회(5/2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북남불교도 동시법회’가 일제히 열렸다고 보도
- “동시법회들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시·군 위원회 교직자, 해당 사찰의 주지들과 승려, 신도들이 참가했다”며 “법회들에서는 예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전함.
- 법회에서 연설자들은 “남조선 현 보수집권 세력의 친미 친일 사대,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대결국면이 조성됐다”면서 남북 및 해

외 불자들이 합심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밝힘.

● 1분기 北주민 2만여명 中방문(5/22,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입국 통계를 인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주민 2만1천여명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명 줄어든 인원이라고 전함.
- 성별로는 남성이 1만8천700명으로 88%를 차지해 2천500명인 여성의 7.5배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45세에서 64세 사이가 1만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5~44세가 9천100명, 15~24세가 1천300명이었음.
- 방문 목적은 중국 내 근로 9천200명, 사업 4천100명, 관광 900명 순으로 밝혀짐.

● 여자아시안컵축구, 북한 미얀마에 2-0 승리(5/2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22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얀마를 2-0으로 이겼다고 전함.
- 8개 나라가 출전해 2개 조로 나뉘어 각 조 상위 두 팀이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2011년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 나갈 자격을 획득하게 됨.
- 이 경기에서 북한은 일본, 미얀마, 태국과 함께 A조에 속하며 24일 일본과 3차전을 맞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경희극 '산울림' 공연은 '오늘의 대고조 시대에 새로운 대비악의 메아리로, 더 높은 창조와 좌표를 세워주고 있다'고 공연성과 선전(5/17, 중통)

2 대외

● 北최태복 ‘북·중친선, 대 이어 발전시켜야’(5/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비서는 18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자국 대사관에서 마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성과 축하모임에서 “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힘.
- 그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조·중친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조·중친선 역사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평가
- 류 대사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은 김 위원장을 따뜻이 환대했다”면서 “이것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불패성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화답함. 이어 “중국은 중·조 관계를 높은 단계로 이끌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복리를 안겨주며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외)

- 北 피바다가극단, 5/14 中國 내몽골자치구에서 ‘홍루몽’ 첫 공연(5/17, 중통)
- 駐北 中대사 유홍재, 5/18 김정일 訪中 성과 관련 친선모임 진행(5/19, 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최태복(黨비서), 김영일·김양건(黨 부부장들), 전의정(국방위 외사국장), 김성남·이용철(黨 부부장들) 등 초대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김수환), 5/18 평양 도착(5/18, 중방)
- 김영남, 5/17 카메룬공화국 창건 38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19, 중통)

3 대남

[北, 천안함 관련 입장]

● 北양형섭, 천안함 ‘北무관’ 주장(5/17, 조선방송; 평양방송)

- 방송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17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함.
- 양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광주인민봉기’(5.18 민주화운동) 3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보고를 통해 남한 당국을 ‘남조선 괴뢰 보수패당’ 등으로 지칭하면서 “괴뢰군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북)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중단 책임을 남한측에 돌리면서 “우리는 민족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말함.
- 이와함께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면서 한국민들에게 “괴뢰 보수당국의 친미 파쇼독재 부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
- 보고회에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충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등이 참석

● 北반제민전, ‘천안함 사건은 북풍 자자극’(5/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을 내세워 ‘전 국민에게 격(檄)함’이란 글을 발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과거 군부파쇼독재자들이 상투적인 ‘위기탈출용’으로 써먹던 케케묵은 ‘북풍’자자극”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반제민전은 이 글에서 “이명박 패당은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

의 희생물인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억지로 날조하여 민심을 오도하고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선거’ 국면을 역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또한 “보수패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이 말끝마다 ‘주적론’과 ‘전쟁불사’ 폭언을 거리낌 없이 뇌까리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이 땅은 말 그대로 위태로운 전쟁발발 직전의 벼랑 끝에 놓여있다”면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국민이라면 어찌 온 강토가 불바다에 잠기고 생의 터전이 초토화되는 무서운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

● **북국방위 ‘남에 검열단 파견…제재엔 전면전쟁’(5/20,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함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성명은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며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청산하고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인 전국가적인 성전”이라고 주장
- 또한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 광신자들의 도발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5/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공화국 정부당국을 대변’해 발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에서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조평통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한다”며 북한 소행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해서도 “어디서 주어진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파편과 (알루미늄)뿔 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며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
- 또한 ‘우리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이날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려한다며 “남조선에 전시상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측 지역에 들어와 있던 남측 인원과 장비, 물자를 긴급 소개하며 신변안전대책과 철수준비를 갖추는 데 대한 극비지령을 내리는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말함.

● 北외무성, 천안함 美 지지입장 비난(5/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1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비난하고 나섬.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 함선 침몰사건을 놓고 ‘북조선의 공격행위’니,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니 하며 우리를 걸고 들었다”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대변인은 대변인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괴뢰 함선 침몰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국제법을 항상 준수해온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변

- 담화는 이어 “이번 사건의 조작과 그 ‘조사결과’라는 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승인과 비호, 조장에 의한 자작극”이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이지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담화는 또한 “조미(북미)는 원래 2009년 12월에 있는 평양 쌍무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또 한차례의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교섭 중에 있었다”며 “이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발기한 3단계 제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6자 틀거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대외정책에서 나약하다는 평판을 받고 올해 1월의 상원 보선에서 공화당에 패한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또다시 강경으로 돌아서면서 괴뢰합선침몰사건 하나에 걸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까지 전면적으로 차단시켰다”고 미 오바마 정부를 비난

● **北인민무력부장 ‘南, 검열단 무조건 수용해야’(5/2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함.
- 김 부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의 말대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즉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앞에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남측의 군사정전위 조사 후 북-유엔사간 장성급회담 개최 입장에 대해 “발생한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와 연계시킨 것도 남측이고, 그 무슨 합동조사결과를 전후해 끝끝내 우리와 대결을 공언한 것도 남측”이라며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해 북남 사이의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유명기구를 끌어들이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힘.
- 통신은 “지금까지 조선 서해해상문제를 북남 군부가 직접 다루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때 미 행정부도 조선서해문제는 자신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밝힌 바 있다”고 주장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어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보아도 남측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본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명시

● 北, 노무현 前대통령 1주기 보도 잇따라(5/23, 노동신문;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북한 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아 남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6.2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 논평에서 “그의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 남조선 보수패당의 정치 보복적인 것”이라며 “보수패당은 민족 화해를 주장하는 진보세력 숙청의 칼을 뽑아들었고 주 대상은 10.4선언 체결 당사자인 노무현이었다”고 덧붙였다.
- 민주조선도 개인 필명 논평에서 “노무현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수치감을 안겨 줘 자살의 길로 내몰았다”며 “남조선(남한) 인민들은 지방선거에서 보수패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선동
-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노무현 사망 1주기를 맞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 분위기와 함께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자들에 대한 울분과 단호한 심판 의지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고 주장

■ 기타 (대남)

- 북남장령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5/16 대북심리모략행위 중단 요구 및 남측인원들의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육로통행 제한, 차단 이상의 실제적 조치” 위협 통지문 발송(5/16, 중통)
-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몰수 및 동결조치 등은 “공화국의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라며 “금강산 관광길을 가로막은 보수패당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응당”하다고 주장(5/17,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5.24-05.31

5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5/27, 중방)
-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찰을 위한 꺄기모임, 5/25~27 양강도와 삼지연, 대흥단, 백암군에서 진행(5/28, 중방)
- 김히택(양강도 黨 책임비서), 장용석(혜산시 黨 책임비서) 등 참가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제21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2월, 캐나다) 기념우표 및 탁구경기 장면 새 우표(묵음전지 1종) 각각 발행(5/24, 중통)
- 사회과학원, 圖書 ‘고려한자시문학연구’와 ‘조선민속놀이편람’ 출판(5/25, 중통)
- 최근 평양 대동강맥주공장(평양시에 150여개)의 발효탱크 등 설비증설(현대화공사)로 생산능력 2배 성장, 맛과 특이한 향으로 근로자들의 청량음료로 호평(5/27, 중통)
- 3월 5일 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 5/30 조업식 진행(5/31, 중방)
- 강령군(黃南) 등암리에 50여동의 문화주택 새집들이, 5/30 진행(5/31, 중방)

다. 사회·문화

● 北, 전가구 대상 탈북자 조사(5/31, 아사히신문)

- 신문은 선양(瀋陽)발로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전(全) 가구를 대상으로 탈북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치안 당국은 4월초부터 오후 6시 이후에 각 가정을 방문해 호적에 등록된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지를 확인, 없으면 이유를 묻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들을 관련 시설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연행자가 이미 1천명을 넘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평양시에서는 17세 이상 주민에게 새 신분증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임.

-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세부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북한은 4월이 아니라 2월부터 주민등록 재확인사업을 벌였고 최근에 완료했다”며 “표면상 탈북자 조사라고는 하지 않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2005년께)에 행방불명된 이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학생소년공전에서 평양인형극단의 인형극 <요술에 걸린 꿈> 등 공연진행 中(5/24, 중통)
- 北 『보천보해불상』 체육경기대회 최상급 축구연맹전(5/10~),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中(5/26, 중통)
- 경희극 ‘산울림’, 5/25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공연 진행(5/27, 중통)
- 北 여자 축구팀, 5/27 ‘2010년 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대회’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에 1:0으로 승리(5/28, 중통)
- 北 여자축구 대표팀, 2010년 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 2위 소식 보도(5/31, 중방)

2 대외

가. 일반

기타 (대외)

- 北 청년동맹 대표단, 이란 민족청년조직 대표단과 5/23 테헤란에서 회담(5/24, 중통)
- 김영남, 5/24 요르단 독립 64돌 즈음 अबد라호 2세 국왕에게 축전(5/24, 중통)
- 김영남, 5/21 ‘아프리카의 날’ 즈음 아프리카동맹 위원장에게 축전(5/24, 중통)
- 김영남, 5/24 인도 여객기 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5/24, 중통)
- 독일 사회민주당출신 연방의회 의원(요한네스 플루그) 일행, 5/24 평양 도착(5/24, 중통)
- 김영남, 5/27 에티오피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27, 중통)
- 北 외무성 대표단(김형준 부상), 5/27 아랍나라 방문차 평양 출발(5/27, 중통)

나. 6자회담(북핵)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5/24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NPT 평가회의(미국, 뉴욕)시 북 핵보유국 불인정, 핵포기 등 대북 여론 관련 “그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5/24, 중통)

3 대남

[천안함 관련 북한 동향]

● 탈북자단체들 ‘천안함 사건, 김정일이 지령한 것’(5/24, 연합뉴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 등 25개 탈북자 단체는 24일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의 최종 결재와 지령 아래 치밀하게 계획되고 집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밝힘.
-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추호도 의심할 것 없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 당국의 군사적 도발로 빚어진 참상”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한 “북한에 무분별한 퍼주기를 하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단이 만들어진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습 흉악범에겐 돈이 아니라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 北, ‘심리전 방송 재개시 조준 격파사격’(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오후 1시 11분 발표된 북한의 이런 입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태영 국방, 유명환 외교, 현인택 통일 3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남북합의에 따라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

힌 직후 나온 것임.

-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또 “전선중부의 괴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헌병초소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가 출현했으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확성기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북남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라고 주장
- 이어 “330헌병초소 건물벽에 새겨 놓은 대북 심리전 구호를 즉각 제거하고 범죄행위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군인들은 이런 도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조준 격파사격으로 심리전 구호와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들을 통째로 날려보낼데 대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부산-나진 北 화물선, 3년만에 운항중단(5/24,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2007년부터 부산항과 북한 나진항을 오가던 북한 국적 정기화물선 ‘단결봉호’의 운항이 3년만에 중단됨.
- 단결봉호는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을 때도 정상 운항해왔음. 2008년 11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단결봉호는 정상 운항함.

● **北국방위, 李대통령 담화 비난(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난
- 국방위 대변인은 이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면서 “역적 패당은 우리를 반대해 서투른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또 “뒤가 썩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

● **김정일, 전군 전투태세 돌입 명령(5/25, NK지식인연대)**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민군과 전 민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짐.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던 20일 오후 7시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의 ‘3방송’은 각 가정의 스피커로 전달되는 ‘유선 라디오 방송망’인데, 북한 당국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주민들한테만 전달할 때 이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오 부위원장은 또 ‘미국과 남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공화국(북한)과 연계시키며 보복하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남한이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고 꾸며낸 모략’이라고 주장, 이어 ‘공화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남조선이 공격해오면 이번 기회에 조국해방전쟁(6.25전쟁) 때 다하지 못한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명령’이라고 강조

● **北통신,李大통령 대국민 담화 또 비난(5/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통일·외교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위협
- 또한 통신은 ‘반역패당의 무모한 보복론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무고한 동족을 걸고 감행되는 ‘보복론’으로 하여 산생되고(빚어지고) 있는 현사태를 엄중한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또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함선침몰 사건을 북남 대결의 최대 기회로 여기는 이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역적 패당은 강성대국의 앞날이 멀지 않은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 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은 전날 오전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뒤 8시간 30분만인 오후

6시 30분께 국방위원회 대변인과 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처음 비난 발언을 쏟아냈고, 약 29시간이 경과한 25일 오후 다시 이 논평을 내놓음.

● **北 남측, 영해침범 계속하면 군사적 조치실행(5/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25일 “(남측의) 해상침범 행위가 계속되면 이미 천명한 대로 우리의 해상수역을 고수하기 위해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만 해도 수십 척의 해군 함정들을 우리측 영해에 침범시켜 함부로 돌아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
- 북측 단장은 또 “이는 조선 서해 해상에서 또 하나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남 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면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강변
- 북한군은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했고, 이어 같은 해 9월 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음.

● **北보안부, 특별기동대 창설(5/2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발표한 당일 북한은 반체제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 산하에 특별기동대를 창설했다고 전함.
- 매체는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 “24일자로 북한 전역에서 도(道) 인민보안부 산하에 300명 규모의 특별기동대를 신설했다”며 “특별기동대는 국경지역에서의 이동전화 사용, 외국 녹화물 시청, 삐라(대북전단) 수집 행위, 당국에 대한 비방행위를 반국가 범죄 차원에서 다루려고 한다”고 밝힘.
- 또한 “기동대 신설은 과거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가 담당했던 반체제 및 반국가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하면서 “최근 ‘보안성(省)’에서 개칭한 ‘보안부(部)’가 보위부의 보안기능까지 흡수해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

◆ 北 조평통 담화발표문 ◆

南 당국과 “모든 관계 단절” 등 8개항의 1단계 실행조치 ‘담화’(5.25)

- ① 南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
- ② 現정부 임기기간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 중단
- ③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중지
- ④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
- 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
- ⑥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北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
- ⑦ 南 선박,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 금지
- ⑧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

● 北, 南대북조치에 ‘남북관계 단절’ 대응(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남한의 국방·외교·통일장관의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고 선포,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금지한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언급
- 그는 이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면서 “앞장에 나서서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단호한 징벌 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제부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이와 같은 8개 항을 1단계 조치라고 밝힘.

● 北, 南도발에 섬멸전으로 대답(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은 25일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조사결과 발표는 ‘날조설’이라며 “만약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에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떤 사소한 도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정의의 섬멸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힘.
- 군사 논평원은 이날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논한다’는 장문의 글에서 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 등을 내세워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기보다 ‘1번’이라는 글씨 등 남쪽에서 제기된 일부 의문점을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민·군합동조사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을 겨냥해 “이 나라들은 괴뢰들이 연출한 모략극의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살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모여든 쉬파리떼”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논평원은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풍’을 노린 위기탈출용”이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합선 침몰사고의 원인을 우리와 연계시키면서 동족압살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역적패당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반격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판문점·해운통신선 단절 통보(5/26, 연합뉴스)

-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밝힌 행동조치에 따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 차단을 통보해왔다고 밝힘.
-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사업중단과 통신연계를 차단한다고 알려왔으며 해사 당국 간 통신망에 대해서도 우리 해운 당국 앞으로 통신연계 차단을 통보

● 北, 남북경협사무소 인원 추방도 통보(5/26, 연합뉴스)

- 북측이 26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인원에 대한 추방을 우리 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11시 5분께 경협사무소에 찾아와 이날 낮 12시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함.
-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현재 통일부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경협 관련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해왔고 남북 당국 간 접촉장소로 쓰였음.

● 北, 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폐쇄’ 위협(5/2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확성기 설치는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자,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 격파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주장
- 북측 대표단장은 또 “만약 남측이 빠라(전단)살포행위를 의연히 계속하고 심리전 방송까지 재개하면 즉시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우리 군대의 강경대응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中과 국경에 박격포·방사포 배치(5/26,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북·중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박격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이 일대에 방사포 여단을 전개시킨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이날 “올해 2월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북·중 국경 전역 국경경비대의 각 중대까지 82mm 박격포를 운용하는 화력지원 소대가 새로 편성돼 실전 배치가 끝났다”고 밝힘.
- 소식통은 “82mm 박격포는 휴대가 가능한 60mm와 달리 차량으로 견인해 이동한다”며 “박격포 소대마다 최소 4문이 배치됐다는 것은 국경경비대가 기본적인 보병부대의 화력을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
- 북한은 내부적으로 “중국 쪽에서 남조선 특공대가 공격해올 수 있다”면서 화력 증강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軍 총참모부 중대 통고문 ◆

北, 우리 대통령 3部 장관의 『對北 제재조치』 발표(5.24) 관련 7개항의 ‘중대 통고문’(5.27)

- ① 남북협력교류와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
- ② 南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책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응
- ③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쌍방향의 완전히 무효화
- ④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 침범시 즉시 물리적 타격
- ⑤ 北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南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를 전면 불허
- ⑥ 南 당국자 북한 출입 엄금
- ⑦ 검열단 차단행동이 계속되는 한 ‘날조극’, ‘모략극’ 정체 끝까지 규명

● 北총참모부, ‘남북교류 군사적 보장 철회’(5/2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중대통고문’을 통해 7개항의 ‘중대조치’를 밝히면서 동·서해 군 통신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이같이 말함.
- 총참모부는 또 이번 통고문이 ‘혁명무력의 1차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남조선) 괴뢰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 전반적인 전선에서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조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 해상 초단파 무선대화기 사용을 일체 중단하고 긴급 정황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도 즉시 단절할 것”이라고 말함.
- 통고문은 “조선 서해의 우리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 행위에는 즉시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뒤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역적 패당의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도 전면 불허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괴뢰 당국자들을 포함한 역적패당들의 우리 공화국 경내 출입을 철저히 엄금할 것”이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에 대한 차단 행동이 계속되는 한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변

● **北, 재외공관 통해 천안함 결백 주장(5/2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일 남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국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외공관의 무관등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 **北국방위 ‘130t 연어급 잠수정 보유 안해’(5/28,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박 국장은 “130t 짜리 잠수정이 1.7t짜리 중어뢰를 싣고 해군기지에서 떠나서 공해를 돌아서 ㄷ자형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 다시 돌아간다는게 군사상식으로 이해가 가느냐”며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
- 박 국장은 검열단 파견 입장에 대해 “우리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 지역에 파견해서 그들이 내놓는 물증들을 현지에서 직접 검열·확인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남측은 날조된 조사결과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검열단의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외무성, ‘안보리 회부 지지’ 美 비난(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발표하며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천안호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만약 유엔 안보리가 또 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아나 천안호 사건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상정 논의만 해도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우리가 이미 선포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하수인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낙인해 남조선 당국을 내세워 군사정전위에서 문제를 논의하지는 주장을 펴는 것 역시 자기모순”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군 측 수석위원을 철수시키고 남조선 장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때부터 군사정전위는 마비됐다”고 주장

● **北조국전선, ‘남주민들에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2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
- 통신에 따르면 조국전선 중앙위는 공개편지에서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는 지방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면서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라며 이같이 말함.
- 조국전선은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을 부인하면서 “괴뢰 보수패당이 꾸며낸 전대미문의 모략광대극”이라고 주장
-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도 27일 성명을 발표,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다시 주장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펼쳐 일어나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전면 파탄시키고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

● **北평양서 10만 군중대회…‘천안함 무관’ 재차주장(5/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 우리 측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
-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주민 10만여 명이 평양시내 김일성 광장에 모여 ‘미제와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

- 북한 노동당 평양시당의 최영림 책임비서는 보고에서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킨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를 떠벌이고 있다”며 “남조선과 그에 결탁한 미·일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으로 당장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과 관련, “괴뢰패당이 외세와 공조해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한계 없는 보복타격,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으로 무장해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고 원수들이 덤벼들면 즉시 섬멸전을 벌일 전투동원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변
- 이 대회 주석단에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당 비서, 김기남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모습을 보임.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왜 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5/31, 평방)
- ‘갈수록 드러나는 모략극의 내막’(5/31, 평방)
- ‘천안호 침몰 조작사건을 통해 노린 진의도’(5/31, 평방)
-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러낸 호전적 망발’(5/31, 중방)
- ‘동족대결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5/31, 중통·노동신문·중방)
- ‘여론조작 물이가 낡은 희비극’(5/31, 평방)
- 국가자원개발지도국 처장 김흥주 등, “날조극을 美日 당국자들이 비호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5/31, 중통)

[천안함 관련 남한 동향]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현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혈뺐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두벽두벽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 ‘남북해운합의서 유지…운항불허’(5/24, 연합뉴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한 외교·통일·국방 등 3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 회견에서 우리 쪽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 운항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있지만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힘.
- 현 장관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 그는 “개성공단은 현재 상태로 생산여건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또 방북승인 불허와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조치에 대해 “영유아 지원 등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인도적 목적의 북측 주민 접촉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시사

● **국방부 ‘오늘 오후 심리전방송 재개’(5/24, 연합뉴스)**

- 국방부는 24일 오후부터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해상항로 대를 폐쇄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대북 전단살포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음.
-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에 관한 보충 설명을 통해 “오늘 오후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오늘 이라도 대북 전단 살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함.

- 군당국은 2004년 6월 15일 중단한 '자유의 소리' 방송을 6년만에 재개함. 이 방송은 FM방송으로, 전파변환 장치를 거쳐 앞으로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 재설치되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해짐, 군은 이달 중으로 MDL 지역에 확성기 설치작업에 착수
- 장 실장은 “오늘 남북항로대를 폐쇄했으며 북한에 오전에 전통문을 보내 폐쇄 사실을 주지했다”며 “이미 영해에 들어온 3척의 북한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해 통과를 허용했다”고 설명

● **김국방 ‘北, 심리전 공격하면 즉각 대응’(5/24, 연합뉴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나 전광판에 북한이 공격할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 “북한측이 심리전 수행을 공격해 온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또 그는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심리전 방송 시설을 북한이 격파한다면 명백한 군사도발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함.
- 김 장관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과 관련,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 그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질 사태가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기업별 할당(5/25, 연합뉴스)**

-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체류인원을 사실상 할당한 것으로 전해짐.
-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지원 등을 맡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지원단)은 전날 입주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원 복귀할 것을 주문
- 다만, 개성공단에 체류하지 않고 당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는 방문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입주기업별로 할당된 개성공단 체류 상한이 유지되면 직원이 교대로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

● 해군-해경, ‘남북해상항로 폐쇄’ 공조(5/25, 연합뉴스)

- 해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남북해상항로 폐쇄’ 결정에 따라 24일 오후 해경과 회의를 갖고 양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해군작전사령관과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해군과 해경은 북한선박의 위협과 도발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음.

● 南정부, ‘北=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5/25, 연합뉴스)

-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함.
-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함. 또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임.
-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임.

● 軍, ‘문무대왕함’ 北선박 차단작전 투입(5/25, 연합뉴스)

- 군당국은 제주해협에 진입하는 북한 상선 차단을 위해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KDX-II.4천500t급)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
-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제주해협에 진입하는 북한 상선을 차단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군의 문무대왕함을 투입했다”면서 “현재 제주 동방에서 북한 선박 진입 여부를 감시 중”이라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제주도 쪽으로 향해하는 북한 선박이 식별될 경우 해상초계기(P-3C)와 링스 대잠 헬기를 추가로 투입해 차단할 것”이라며 “문무대왕함과 P-3C를 운용하는 포항의 해군 6전단이 수시로 통신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함.

● 軍, ‘北추가도발’ 예의주시…최악의 시나리오 대비(5/27, 연합뉴스)

- 군당국은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북한군의 군사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력 이동 등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대북 감시체계는 강화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유형별 추가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군은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유형과 관련,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붙잡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우리 함정에 포사격을 가하는 것 등을 꼽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최전방 소초에서 국지적인 총격전도 예상 도발 시나리오로 상정된 것으로 전해짐.
- 국방위는 성명에서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 광신자들의 도발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김태영 국방장관은 26일 국방·통일·외교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천안함 설명회에서 “북한이 전방에서 화성기 등에 조준사격을 가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교전규칙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사태 악화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

● **軍, 특전사서 ‘北우발행동’ 대응 전술토의(5/29, 연합뉴스)**

- 군당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에 반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전술을 토의
- 이상의 합동참모회의 의장 주관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에서 열린 전술토의에는 최용림 특전사령관과 배명헌 항공작전사령관, 합참의 주요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함.
-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대비 태세 강화를 비롯한 북한의 유형별 군사도발에 대한 작전개념의 방향 설정을 토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北, 개성공단 개발계속, 등록설비 반출불허(5/31,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함.

-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 하다고 하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
- 이에 덧붙여 북한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함.

06.01-06.06

6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리정부 포병사령관 사망(6/2,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군의 리정부 포병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전하며 “김정일 동지가 조선인민군 장령(장성)이었던 리정부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 1997년 군 중장이 된 리 사령관은 2009년 1월부터 포병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같은 해 3월부터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을 겸함.

- **김정일…軍공연 관람(6/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호위사령부인 제963군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김 국방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인민군 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며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선을 사수하고 있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공연에는 최근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윤정린 호위사령관과 김성덕 상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경옥·리제강·리재일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北 리제강 당 제1부부장, 교통사고 사망(6/2,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2일 사망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제강 동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2일 0시 45분 80살을 일기로 서거했다”면서 “리제강 동지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해 온갖 정열을

다바쳤다”고 평가

- 리 제1부부장은 1973년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공직에 입문, 1982년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김정일 서기실 서기로 발탁됐고 2001년부터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직을 수행, 지난 4월 사망한 리용철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함께 후계자 김정일의 생모인 고 고영희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평북 기계공장 현지도(6/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한 기계공장을 현지도했다고 보도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도했다며 이 공장에서 새로 만든 최신식 기계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 도입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현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부장들인 김경희·장성택,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동행

● **김정일…남흥청년화확 현지도(6/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연탄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평남 안주시의 남흥청년화확연합기업소를 현지도했다고 밝힘.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비날론 대경사에 이어 남흥가스화대상건설이 완공돼 비료가 쏟아져나오게 된 것은 또 하나의 대경사이고 이제는 농촌에 많은 비료를 보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함.
- 현지도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장성택 부장, 주구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남…“아버지 건강 좋다, 천안함? 모른다”(6/6, 중앙일보)**

- 신문은 지난 4일 마카오 신도심 코타이에 있는 알티라 호텔의 식당 엘리베이터 쪽에서 김정남을 만나 1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김정남은 아버지 김 위원장의 건강을 묻는 질문에 “좋으십니다”라고 말했으며,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천안함? 나는 모릅니다”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보도
- 김정남은 또 유럽 쪽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망명설에 대해서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전혀 유럽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신문이 전함.

● 김정일...평양 교외 과수농장 현지지도(6/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에서 건설해 운영하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7개월만에 다시 찾았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과일 보관고와 세척-절단-말리기(건조)-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사과말린편공장'을 둘러본 뒤 만족을 표시하고 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촬영을 함.
- 현지지도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 부장, 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동향

- 6/ 2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6/2, 중통)
 - 유정린(대장), 김성덕(상장), 김경희(黨부장), 김경옥·이제강·이재일(黨 제1부부장들) 등 동행
- 6/ 2 김정일, 6/1 故 이정부(포병사령부 사령관)의 빈소에 화환 전달(6.2,중통)
- 6/ 3 김정일, 평안북도에 위치한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6/3,중통·중방)
 - 김평해(평안북도위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당 부장들), 현철해·이명수(국방위 국장들) 동행
- 6/ 3 김정일, 故 리제강(80세, 黨 제1부부장) 빈소에 화환 전달(6/3, 중통·중방)
- 6/ 5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장성택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6/ 6 김정일, 평양 교외 과수농장 현지지도(6/6, 중통)
 -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장성택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이 평안북도에 불도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군민연환대회」, 5/31 신의주시에서 진행(6/1, 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이응무(국방위 부위원장), 김평해(평안북도 당책), 심상대(軍 상장), 김창식(농업상) 등 참가
- 김정일 저작(경공업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발표 20돌 기념 중앙보고회, 6/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6/1, 중통)
 - 김영일(내각 총리), 광범기·박명선(내각 부총리), 최영림(평양시 黨 책임비서) 등 참가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김정일의 중국 비공식방문(5/5~7)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3종) 및 국제아동절 60돌(소형전지 1종)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경기대회(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기념우표 각각 발행(6/1,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주민-상주 외국인 휴대전화 통화 불가(6/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주민과 상주 외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망이 분리돼 있어 이들 사이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에서 일하는 비정부기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북한 주민용 번호는 서로 연결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직원과 업무에 필요한 통화를 하려면 북한 안내원과 연결한 뒤 안내원이 말을 전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이 방송의 설명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성 중앙기관 일꾼들 정무원들 등, 농촌 모내기사업 적극 지원(6/2, 중통)

2 대외

● 北 ‘안보리, 천안함 조사결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6/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관련,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문제가 안보리 이사회

에 제기될 경우, 그 성원국들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선차적(우선적) 주의를 돌리고 자체의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미얀마 핵개발 은폐 터널구축 지원(6/4, 알-자지라; 연합뉴스)

- 알-자지라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핵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터널 구축을 북한이 지원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고 보도
- 알-자지라는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망명 미얀마방송국인 ‘버마 민주화 소리(Democratic Voice of Brma, DVB)’가 최근 미얀마에서 망명한 전직 장교인 ‘사이 테인 윈’ 소령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와 사진 등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힘.
- DVB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공습 공격에 대비해 지하터널 일부를 군지휘통제소로 사용할 수 있게 또 다른 터널은 비밀 무기와 장비 저장용으로 축구장 두 개 크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건설했음을 보여주는 수천장의 사진과 망명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북한이 전문 기술을 제공해 이 터널망의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 천안함 사태 관련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내세워 꾸며낸 아시아판 9.11사건”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쟁과 같은 반테러전의 각본까지 상정될 수 있다”고 주장(6/1, 조선신보)
- 日 ‘하토야마’총리 사임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미국에 굴복(후텐마 미군기지 관련 美요구 수용)한 그에게 일본 인민과 역사가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6/3, 중통)

3 대남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망동’(6/1, 평방)
 - ‘함선 침몰사건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괴뢰 역도의 잔인한 모략극’(6/1, 중방)
 - ‘민족의 통일염원을 짓밟은 극악한 반통일 악당’(6/1, 평방)
 -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안고’(6/1, 평방)
 - ‘북남관계 파탄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어리석은 귀변’(6/1, 평방)
 - ‘역적패당이 꾸며낸 허황한 날조극’(6/1, 중방)
 - ‘일방적인 짜맞추기에 의한 날조극’(6/1, 중방)
 - ‘터무니없는 조작극’(6/1, 중방)
 - ‘도마 위에 오른 반역정권’(6/1, 평방)
 -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복닥소동’(6/2, 평방)
 - ‘사대매국노들의 국제공조 놀음’(6/2, 평방)
 - ‘함선 침몰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자료공개를 요구’(6/2, 중방)
 -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망동’(6/2, 중방)
 - ‘모략의 산물 20일’(6/2, 평방)
 - 조명희(낙랑옷공장 지배인), 김영남(평양 외국어대학 청년동맹 비서), 김정수(평양강철공장 작업반장), 유복순(사리원시 미곡협농 농장원), 리경일(평양외국어대학 학생), 김태하(금성제1중학교 교장) 등 일꾼-노동자-학생 등 천안함 조사발표 비난(6/1, 중·평방·중통)
 -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소동’(6/3, 중방)
 - ‘사건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예리한 논거’(6/3, 중방)
 - ‘진실을 가리우는 망동’(6/3, 중방)
 - ‘뻔뻔스러운 거짓말’(6/3, 평방)
 - ‘파멸을 촉진할 도발적인 주적 타령’(6/3, 평방)

- ‘사건 날조범들의 필사적인 몸부림’(6/3, 평방)
- 녹음구성 ‘흑백을 전도하는 남조선 역적패당에게 무자비한 징벌을’(6/3, 중방)
- ‘역적패당의 흉악한 기도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6/3, 중방/평양시 인민위 김만복 국장)

● **北신문 ‘주적 개념’ 부활은 북침 기도(6/1, 조선중앙통신)**

-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다시 넣는다는 남한 정부 방침과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에 대한 ‘주적개념’의 공식 명문화는 곧 북침전쟁 도발기도의 명문화”라고 밝힌 것으로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호전광의 분별없는 대결전쟁소동’이라는 개인필명 논평에서 “주적 개념의 정식 부활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 도전”이라며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다시 꺼내 대결을 선동하는 것은 전쟁도발도 서슴지 않으려는 반민족적 망동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함.
- 신문은 또 “(남조선) 괴뢰들이 함선침몰 사건을 악용해 북침전쟁 도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미 선언한 대로 도발자들의 ‘대응’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무자비한 행동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변

● **천안함 날조…괴서한 대북교역업체에 발송(6/2, 연합뉴스)**

- 천안함 사태의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는 괴서한이 국내 종교·사회단체에 무더기로 발송된데 이어 대북교역업체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
-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A4용지 5장짜리 편지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보냈으며, 발신처는 ‘중국 북경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돼있음.
- 이어 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체 2곳에도 팩스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
- 문건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A4용지 5장짜리와 민족화해협의회 명의의 ‘남녘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A4용지 4장

짜리

- 또 이날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또 다른 수산물 수입업체에도 같은 내용의 괴서한이 팩스로 발송
- 이들 괴서한에는 ‘천안함 사태는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조선 인민들이 선거를 통해 역전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는 선전선동 문구가 담겨있음.

● **판문점 JSA 근무 북한군 철모 착용(6/2, 연합뉴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철모를 쓰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유엔사 관계자는 “판문점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지난 27일부터 철모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힘.

● **北자강도 등 지방서도 南규탄 군중대회 열려(6/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에 이어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에서도 남한과 미국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남조선 호전광과 미제 침략자의 반공화국 대결모략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도로 침체화됐다면서 특대형 모략극을 조작한 원수들의 망동은 조선(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보고자들은 또 “온 나라의 전체 인민은 지금 적들의 응징에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대응하고 전쟁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징벌을 안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南선거관련 연일 ‘표로 심판’선동(6/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
- 북한은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남한에서 주요 선거가 있을 때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자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내보내음.

- 통신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1일에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은 ‘남녘의 동포 형제자매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남녘 동포 형제자매들이 보수패당에 철추를 내림으로써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부추김.
- 지난달 29일에는 역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 “지방자치제 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며,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 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떨쳐 일어나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였던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반통일 대결에 환장한 매국역적의 죄악은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제선거는 살인정권에 대한 인민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 것”이라고 언급

● **北, 민심이 남측 정권에 등 돌렸다(6/3, 교도통신)**

- 북한 외무성의 로정수(魯正秀) 연구원은 평양에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 중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인심이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정권 공약을 버린 결과로 자업자득이다.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통신 남한 인민들의 단호한 징벌(6/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3일 남한의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남조선의 민주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극우보수적인 ‘한나라당’은 대참패를 당하였다”고 첫 반응을 나타냄.
- 통신은 이날 “괴뢰 보수패당은 심각한 파쇼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모략적인 괴뢰군 함선 침몰사건까지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전쟁전야의 사태로 몰아가면서 온갖 단말마적 발악을 다하였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그리고 반통일,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단호한 징벌이며 준엄한 철추”라고 주장

- 또한 통신은 “내외신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주목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 ‘민주와 평화를 지키려는 민심의 분출’, ‘독선과 오만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널리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한반도 긴장...언제든 전쟁 날 정도(6/4, 연합뉴스)

-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본회의에 참석, “한반도의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함.
- 리 공사는 북한군과 인민들은 전면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 수단에 대해 경계태세를 펴고 있으며,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
-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간 화해를 향한 변화와 발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반복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한 정권에 의해 이뤄진 (천안함) 조사 결과는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
- 또한 그는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어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하게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南정부의 천안함 관련 대북조치(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험을 전면 금지) 후, 통일부는 간마늘, 이류, 건선 단자 등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 반입을 허용(6/1, 연합뉴스)
- 北, 南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안함 날조’ 관련글 유포(6/1, 연합뉴스)
- 북한 주민 1명 서해로 귀순(6/1, 연합뉴스)
- 통일부는 앞서 1일에 이서 오늘 의류, 신발 등 7억원 규모의 대북 위탁가공 완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전날 승인(6/4, 연합뉴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07-06.13

6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국제사회 제재, 北발전 못막아(6/7, 신화통신)

- 통신은 6일자 북한 로동신문을 인용, 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적들의 어떠한 반(反)조선(북한) 제재 행위도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전진하는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현재 조선 곳곳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열기가 하늘을 찌르며 시시각각 놀라운 성과가 창조되고 있다”면서 “조선은 위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모든 당과 국가, 인민들이 총동원되어 각 분야의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통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이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하자”고 강조
- 또한 그는 “이 회사의 간부와 직원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기술로 단기간 내에 남흥가스화대상건설을 완공한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면서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비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대량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했다”고 평가
- 김 위원장은 “철저한 준비와 기술관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료 생산을 실현하라”고 회사 측에 촉구하면서 내각과 다른 부처에도 “이 회사가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충분히 보장해 최대한의 생산을 보장하라”고 촉구

● 北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 선임, 내각총리 최영림 임명(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열어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노동당 행정부장 겸직)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새 내각 총리에 최영림을 임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약 두 달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냄.
- 관심을 모았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공식 임명,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남

- 조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후속 입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내각 부총리였던 곽범기, 오수용, 박명선 3명이 해임되고, 강능수 노동당 부장과 김락희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전하철 당 중앙위 위원 4명이 새로 부총리에 임명
- 또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에게 내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해,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남. 종전의 내각 부총리 5명 가운데 로두철, 박수길 2명은 유임
- 장성택의 부위원장 승진으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의 부위원장은 종전의 리용무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부위원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 그러나 국방위 위원 숫자는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5월 14일 해임)과 장성택 자리가 없어져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듦.
- 이밖에 안정수가 경공업상에,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국장이 식료일용공업상에, 박명철 국방위 참사가 체육상에 임명되고, 전임인 리주오 경공업상과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은 해임

● 北, 총리 등 프로필 공개(6/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된 최영림 총리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나이와 경력을 통신과 방송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
- 장 부위원장의 경우 1946년 1월 22일에 출생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부터 당의 중요 직책을 순차적으로 거친 뒤 2007년부터 당 행정부장을 맡아온 것으로 소개
- 직전 보직이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추정됐던 강능수 신임 부총리의 경우 영화부장과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것으로 소개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8일자 2면에 최 총리와 장 부위원장 등 8명의 사진과 약력을 실었는데, 이 신문은 작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국방위 위원 8명의 사진을 게재했지만 경력은 소개하지 않았음.

[최고인민회의의 관련]

-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3차 회의, 김정일과 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 의장/개폐회사) 등 참석下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6/7, 중방·중통)**
 - 안건 : ①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 ② 조직문제
 -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 등 선거 결과 및 약력 소개(6.8, 중통)

직 책	新 任(선거)	解 任(소환)	참 고 사 항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65)		2007년부터 黨행정부장역임
내각 총리	최영림(81)	김영일	
내각 부총리	강능수(81), 김락희(78), 리태남(73), 전하철(83), 조병주(69), 한광복(65)	곽범기, 오수영, 박명선	조병주(기계공업상 겸임) 한광복(전자공업상 겸임)
경공업상	안정수	리주오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	정연과	
체육상	박명철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체육지도위원회→‘체육성’으로 명칭변경 추정

[최고인민회의의 이후 남한 전문가 의견]

- 장성택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를 재확인함으로써 후계구도 정립 과정에서 장성택에게 관리자 역할을 부여한 측면 있음. 또 후계구도를 김정은으로 바로 가져가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장성택에게 ‘중간다리’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장성택이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대내외적으로 다시 확인
- 장성택의 국방위 부위원장 승진은 그가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걸 대내외에 알린 것임. 책임과 권한을 모두 줌으로써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장성택이 국방위 부위원장과 노동당 행정부장을 겸직하게 됐다는 점에서 당·정·군의 결속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음.
-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방위를 앞으로 후계체제를 뒷받

침하고 전체적 후계 이양과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음. 국방위를 후계체제 구축의 근간 조직으로 삼을 것이라는 징후는 몇 년 전부터 법적 위상 강화나 직무기능 확대 등을 통해 감지돼왔음.

- 화폐개혁 이후 틀어진 민심을 수습해 국가 기강을 확고히 통제하고 후계구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함. 내각 개편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에 대한 문제이고 내각의 상(相)들을 교체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싶음.
-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 기용된 인물들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자신이 전체 수뇌부 인사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견제함을 과시하려 한 것 같음.
- 총리와 부총리에 당쪽 인사들이 많이 기용된 배경에는 노동당의 지도 하에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가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음.

● **황장엽…김정일, 후계위해 장성택 선택(6/9, 데일리NK)**

- 데일리NK에 따르면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전 비서는 8일 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학생 ‘철학강좌’에서 “(김정일이) 후계체제 구축이나 국방위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장성택을 표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으로 김정일 정권의 실체가 극명히 드러났다”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
- 이어 “중국도 이번 사건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최선을 다한 셈이며 더 이상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또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한) 좌파에 힘을 실어주고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해 (김정일)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차제에 남한 국민들에게 햇볕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각성시켜 올바른 대북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897호」, 봉화화학공장 2직장 등에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과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운수직장 등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6/8, 중방)
- 개성시·2.8비날론연합기업소·원산화학공장 종업원들, 반복대결 규탄 군중대회 진행(6/8, 중방)
- 평양방직기계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기업소-농장 종업원들의 '반복대결' 규탄 군중집회 진행(6/9, 중방·평방)

나. 경제

● 북한 채권값, 천안함사건 이후 소폭 상승(6/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 채권 가격은 소폭 올라 1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이 방송은 “최근 국제시장에서 북한 채권은 달러당 10.75센트 내지 12.75센트에 거래돼,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최고 30% 가까이 올랐다”면서 “2008년 달러당 30센트대를 유지하던 북한 채권은 작년 4월 6센트까지 떨어진 뒤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초 10센트 안팎에 거래됐다”고 전함.

● 北화폐개혁 유출 혐의 20대 처형위기(6/9, 데일리NK)

- 작년 11월말 단행된 화폐개혁 소식을 외부에 유출 혐의로 신의주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 검거돼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고 데일리NK는 전함.
- 이 매체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신의주에서 휴대전화으로 한국과 통화한 혐의를 받은 20대 강모 씨가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화폐개혁 사실을 외부에 처음 알린 혐의가 확정돼 처형 날짜가 잡혔다”며 강씨는 도매 물품 트럭 운전기사라고 밝힘.
- 소식통은 “이 젊은이가 화폐개혁 소식을 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체포된 시기는 4월이기 때문에 두 달 간에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강제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은 최근 인민보안부 산하에 ‘체제 단속’을 위한 특별 경비대를 창설하는 등 반체제 사범 검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외부에 소식을 전해왔던 소식통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

- 이어 “북한 내 간첩 사건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2월 사리원에서 구걸을 하던 할머니와 5월 강원도 고성군 안변발전소 지배인이 모두 ‘간첩행위’ 혐의로 검거됐다고 덧붙였다.

● 주체철(鐵) 기술을 학문으로?…北, 학회 설립(6/10, 조선신보)

- 북한이 ‘주체철’ 생산기술과 관련 이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난 1월 ‘주체철학회’를 설립했다고 조선신보가 뒤늦게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주체철학회는 이미 개발된 주체철 생산 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탐구하는 일을 함.
- 신보는 “내각 금속공업성의 일꾼들과 교육·연구·생산 단위의 권위있는 과학기술자들이 학회에 망라돼 있다”면서 “앞으로 주체철 생산이론과 방법에 관한 과학기술토론회와 발표회를 활발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의 ‘주체철’은 수입에 의존하는 중유와 코크스 대신 북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철강을 말하는데, 북한은 작년 12월 함경북도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주체철 생산체계를 처음 완성한 이후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등에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내 경제)

- 70여개 市·郡 모내기 종료, 전국적으로 70% 모내기 완료 보도(6/9, 중방)

다. 사회문화

● 北 영유아 19% 저체중, 32% 발육부진(6/9,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다섯 가운데 하나꼴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함.
- VOA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난해 9월말부터 약 한달간 북한 10개 도의 300개 지역에서 7천5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세 이하의 19%가 ‘저체중’ 상태이고, 32%는 나이에 비해 키가 덜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北TV, 대표팀 남아공 입성·훈련 소개(6/9, 조선중앙TV)**

-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TV도 남아공에 입성한 북한 대표팀의 소식을 전함.
- 방송은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나라 남자 축구선수단이 남아프리카에서 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신심 드높이 맹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팀은 평양시간으로 6월 16일 3시 30분에 브라질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밝힘.
- 김정훈 감독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팀은 이번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세계적인 강팀인 브라질팀, 포르투갈팀, 코트디부아르팀과 경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기세가 충천하며 우리식의 전술로서 상대팀을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또 최길호 코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팀이 맞닥들일(맞설) 브라질팀, 포르투갈팀, 코트디부아르팀과 대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실력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팀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강조
- 공격수인 문인국은 “우리는 1960년대 세계축구선수권대회처럼 다시 한번 천리마 축구팀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겠다”며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 신화의 재연을 다짐함.

● **北홍루몽 내달 5~7일 베이징서 연장공연(6/10, 신화통신)**

- 통신은 중국을 순회공연 중인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다음 달 5~7일 베이징 연장 공연에 나선다고 보도
-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맞춰 지난달 6~9일 베이징TV 대극장에서 홍루몽을 무대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째 네이멍구(內蒙古) 호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사(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 중
- 북·중간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홍루몽은 청나라 때 조설근(曹雪芹)이 지은 장편소설로, 주인공 가보옥(賈寶玉)과 여주인공 임대옥(林黛玉), 설보채(薛寶釵)의 비극적 사랑과 그 가문의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임.

● 北…평양 청년들, 15도 흑맥주 즐겨(6/10, 조선신보)

- 신보는 평양의 청년들은 알코올 도수가 15도나 되는 흑맥주를 즐기고, 여성들은 100% 흰쌀맥주를 많이 찾는다고 전함.
- 신보에 따르면 4월말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 보통강 구역의 ‘경흥관 맥주집’에서는 알코올 15도와 10도의 흑맥주를 비롯해 100% 보리맥주와 100% 흰쌀맥주까지 모두 7종의 맥주를 팔고 있음.
- 이 맥주집에서 일하는 리영희(45)씨는 “장년층은 주로 보리 30%에 흰쌀 70%로 만들어진 ‘3번’ 맥주를 마시고, 청년들은 보리 80%에 흰쌀 20%가 섞인 15도짜리 ‘6번’ 흑맥주를 많이 마시며, 여성들은 흰쌀 100%로 만들어진 ‘5번’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함.
- 북한에서 가장 큰 맥주집인 경흥관은 1천개의 좌석을 갖추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으로 나눠 영업을 함. 지배인 안선희(56)씨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새로 개발된 7가지 맥주의 질과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수도의 시민들에게 널리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신보에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대동강맥주공장에 발효탱크와 저장탱크가 여러 개 증설돼 맥주 생산능력이 2배로 늘었고, 평양 시내에 150여개 맥주집이 있다고 전한 바 있음.

● 北도 흡연女 증가?…여성금연 시기적절 평가(6/10, 조선신보)

- ‘세계 금연의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북한 보건성의 박정민 국장은 “현재 세계적 흡연유행이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담배산업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가장 유망한 이윤확보 원천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보는 전함.
- 그는 또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담배통제법이 공포됐음을 강조
-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말 담배통제법에 따라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돼 있고, 평양의 금연제품 전시장에서는 금연보조제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보도

● 北 김일성종합대학 부속대 7곳으로 늘어(6/11, 조선신보)

- 북한의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지난 4월 부속대(단과대)로 재정대학을 신설한데 이어 5월에는 평양의학대학 등 3개 외부 대학을 흡수해, 부속대를 모두 7곳으로 늘렸다고 신보는 전함.
- 신보는 부속대로 흡수된 대학은 평양의학대학 외에 평양농업대학, 계응상농업대학 2곳이며, 이들 부속대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모표, 휘장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재정대학 설립 이전까지 문학대학, 법률대학, 컴퓨터과학대학 3곳의 부속대가 있었음.
- 북한 교육성 관계자는 “새로 흡수된 평양의학대학 등 3개 부속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전문 과목인 의학, 농학을 교육하고 기타 일반과목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신보에 말함.
- 김일성종합대학은 각각 4~5개 학과로 구성된 역사학부, 철학부, 물리학부 등의 학부별로 나뉘어, 북한에서 유일하게 사회·인문·자연계열 과목을 모두 가르치며, 1999년 컴퓨터과학대학이 처음 부속대로 설립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TV, 한국-그리스전만 방송 내보내지 않음(6/13, 연합뉴스)

2 대외

● 北, 안보리의장에 서한…검열단 확인 선행돼야(6/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신 대사는 8일 유엔 안전리 의장인 클라우드 헬러 유엔 주재 멕시코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보리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먼저 미국과 남조선이 피해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신 대사는 또 “피해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안보리에 상정되고 논의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그때 가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에 어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헬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 앞서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내용도 첨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 천안함 공격 동급잠수함 이란에 수출(6/10, 아사히신문; 연합뉴스)**

-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던 잠수함과 같은 급의 잠수함을 이란에 수출했다고 서울발로 보도
- 이 신문은 복수의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킨 잠수정과 같은 연어급 잠수함(130t급)을 수년전 이란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 또한 “미국 정부가 최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작업의 하나로 2007년 전후 이란의 항구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연어급 잠수함 사진을 한국에 제공했다”면서 “크레인 등으로 잠수함을 이동하는 사진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

● **北-中 6.25전쟁 60주년 맞아 합작영화(6/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6.25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합작영화 제작에 나섬.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조(中朝)간 합작영화 제작을 협의하기 위해 리수이허(李水合) 중국영화제작인협회 부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중국 영화계 인사들이 지난 4~10일 북한 국가영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소개
- 이들은 방북 기간 북한 국가영화위원회 이해성 제작국장과 4.25영화촬영소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대본과 합작 방식 등 합작 영화 제작 방안을 논의,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연내에 영화 제작을 완료하기로 함.

기타 (대외)

- 北대표, 6/3 제네바군축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천안함 군사도발사태에 대해 “미국의 비호 밑에 꾸며낸 날조극, 모략극”이라고 강변하며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6/9, 중통)
- 日 하토야마 前총리 사임의 주요인은 “후덴마 駐日美軍기지 이설문제 등 정부가 자주적 대가 없이 대미추종을 한데 있다”며 “대미 굴종으로 얻은 것이란 치욕과 파멸 뿐”이라고 주장(6/10, 중방)

3 대남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모략극을 폭로하는 비밀문건’(6/4, 중방)
 - ‘합동조사단은 여론오도를 위한 위장간관’(6/4, 중방)
 -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6/4, 중방)
 - 김인찬(평양 충정중학교 부교장), 박영일(평양산원 실장), 장영근(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노동자) 등 천안함 조사발표 비난(6/4, 중방)
 -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무분별한 책동’(6/4, 평방)
 - ‘북침전쟁 발발을 예고하는 위험한 도발소동’(6/4, 중통·노동신문)
 - 러시아 통신의 미군 잠수함에 의한 천안호 침몰 가능성 제기 사실 인용 보도(6/5, 중방)
 - ‘북침전쟁 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조작극’(6/5, 중방)
 - ‘역적패당의 노골화되는 대결광증’(6/5, 평방)
 -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반역패당’(6/5, 평방)
 - ‘북남대결에 환장한 극악한 역적무리’(6/6, 평방)
 - ‘동족을 모해하는 비열한 구걸외교’(6/6, 중통·민주조선)
 - ‘궁색하고 유치한 변명’(6/7, 중통·노동신문)
 - ‘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열한 자들의 모략극’(6/7, 중방·노동신문)
 - ‘동족압살을 노린 추악한 망동’(6/8, 중통·노동신문)

- ‘갈수록 드러나는 천안호 침몰사건의 내막’(6/8, 평방)
- ‘역도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규탄한다’(6/8, 평방)
- ‘유치한 날조극’(6/8, 중방)
- ‘정치적 시녀의 가련한 구걸놀음’(6/9, 평방)
- ‘모험적인 정쟁광란, 전쟁광신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6/9, 중방)
- ‘역적패당의 범죄적 야망을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6/9, 평방)
- ‘평화를 바라는 인민의 지향은 막을 수 없다’(6/9, 평방)
- 공개질의 : ‘천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2회(6/9, 평방)
- ‘함선 침몰의 진짜원인은 어디에 있는가’(6/9, 중방)
- ‘더욱 더 드러나는 반역패당의 정체’(6/9, 평방)
- ‘해상차단 행위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6/9, 평방)
- ‘대결 미치광이의 얼토당토 않은 궤변’(6/9, 중방)
- ‘사태를 어디로 몰고 가는가’(6/10, 평방)
- ‘역사에 유례없는 북풍 자작극’(6/10, 중방)
- 공개질의 : ‘천안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 3회(6/10, 평방)
-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광증’(6/10, 중통·노동신문)
- ‘역적패당이 내놓은 물증은 허위로 일관된 날조품’(6/10, 중방)
- ‘반역무리들의 범죄적 야망을 단호히 짓밟기겠다’(6/10, 중방)
-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6/10, 평방)
-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삼두마차’(6/10, 평방)

● 北, 귀순주민 송환요구(6/7,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일 백령도 해상을 통해 우리 측에 넘어온 북한 주민 1명의 송환을 2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요구해왔다고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가 밝힘.
-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 동인이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우리 측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

● **北미모 여대생 등장 동영상 눈길(6/9, 연합뉴스)**

- 북한은 미모의 여대생을 등장시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한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동영상에는 짧은 단발머리 형태의 ‘보브 컷’ 머리를 한 ‘평양교원대학 박진주’라는 여대생이 나와 “얼마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원래 살던 집도 좋았는데 나라에서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더 크고 넓은 새 집을 줬다”면서 노래하고 박수치는 단란한 가정 모습을 소개
- 이 동영상에서 여대생은 내레이션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집 없이 헐벗고 있으며 방이 없어 자살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화면을 통해 서구의 노숙자들 뿐 아니라 남한의 용산 참사 현장을 보여줘 우회적으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 탈북 시인인 장진성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영상물과 관련, “단순 동영상이 아니라 통전부가 제작한 의도된 편집물로 여대생이라는 여주인공도 실제로는 통전부 산하의 대남 선전 요원일 것”이라며 “여대생의 헤어스타일도 북한에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종의 ‘현지화’된 머리모양”이라고 말함.

● **북한군 전면 군사타격 진입…서울 불바다(6/12, 조선중앙통신)**

- 남한군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조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16년 만에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2일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재개에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포고’를 발표하고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총참모부는 포고에서 “괴뢰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11개소에서 이미 심리전용 확성기를 설치했다”며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
- 이어 “군사적으로 심리전이 전쟁 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는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1차적으로 인민군 전선증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 경고장’을 내고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건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서울 불바다’ 발언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했던 것으로, 당시 이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우리 정부는 이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했음.

● 北통신…한상렬 목사 방북(6/12, 조선중앙통신)

- 당국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한 가운데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당국 허가 없이 불법 방북함.
- 통신은 “남조선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
-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기타 (대남)

- 6.2 지방선거 결과는 “자주, 민주, 통일세력의 승리이며 민심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주장(6/4, 평방)
 - ‘민심의 단호한 심판, 응당한 귀결’(6/5, 중통·노동신문)
 - ‘민심을 따라야 한다’(6/5, 중통·민주조선)
 - 대담, ‘응당한 귀결’(6/4, 평방)
- 통일부의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 등 발간·배포는 “강압적인 대결의식 주입책동”이라고 持續 비난(6/4, 평방)
- 한나라당의 봉은사 주지 외압설 관련, “파소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진보세력은 물론 종교계까지 탄압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6/8,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14-06.20

6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최고인민회의 1주일만에 공개활동(6/1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참석 후 1주일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해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의 군인가족 공연을 관람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963군부대(호위사령부 별칭), 제10215군부대(보위부 별칭), 제7501군부대(보안부 소속) 등 8개 군부대의 군인가족들이 참가한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이번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서는 4중창 ‘영원한 미소’, 독창 ‘나는 군관의 안해(아내)라오’ 등 여러 곡이 무대에 올려졌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군인가족들의 예술공연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 뒤 군중 문화예술 활동을 더 힘있게 추진할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방송은 소개
- 방송은 이 행사에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김경희 당 부장, 주규창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함.

● 北김정일, 새로 만든 축구장 현지지도(6/19, 조선중앙통신)

-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새로 만들어진 축구경기장을 현지지도했다고 통신은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기장의 시설을 둘러본 뒤 “축구경기장을 적극 이용해 군인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고 당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어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새로 만들어진 5m³ 규모의 ‘장백’호 굴착기와 새단장한 건설기계설계연구소 등을 돌아보고 만족스러워 하면서 “질 좋은 기계들은 더 많이 생산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 줘야 한다”고 밝힘.
- 노동당의 김평해 평안북도 책임비서와 김경희·태종수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동향

- 6/15 김정일, 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6/15, 중통)
 -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대장), 우동측(국방위원, 대장), 현철해·이명수·윤정린(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당 부장), 최태복·김기남(당 비서), 김경희(당 부장), 주규창(당 제1부부장) 등과 함께 관람
- 6/19 김정일, 새로만든 축구장 및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6/19, 중통)
 - 김명해(노동당 평안북도 책임비서), 김경희·태종수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6/14 인민문화궁전에서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보고), 南 한상렬 목사 등 참가하 진행(6/14, 중방)
 - 김영남, 노두철(내각 부총리), 김영대(『사민당』 상임위 위원장), 류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완수(『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장), 안경호(『조평통』 서기국장/사회), 조일민(『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등 참가
- 김정일의 黨사업 개시(1964.6.19) 46돌 즈음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6.17 노성실(여맹위원장/경축보고), 리영수(黨 중앙위 부장) 등 참가하 개선문광장에서 진행(6/17, 중방)

나. 경제

● 北 ‘울인’ 희천발전소, 발전용량 30만 kw(6/14, 연합뉴스)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인사들의 말을 인용,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북한 자강도 청천강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희천 수력발전소가 최근 댐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완공되면 발전용량이 30만kW에 이를 것이라고 전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류홍차이(疏洪才) 주북한대사가 지난 10일 희천발전소를 시찰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발전소 발전 용량이 30만kW라고 확인함.
- 이어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공사에 매진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2012년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
-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수력발전소의 낡은 터빈을 교체하고 예성강, 금진강, 어랑천, 태천, 단천, 희천발전소를 착공하는 등 수력발전소 건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특히 희천발전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신년 공동시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북한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1주년을 맞은 지난 3월 22일 보도를 통해 희천발전소 건설과 관련 “평양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완공될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에 직통으로 전기를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음.

● 北, 1천 24개 인터넷주소 등록(6/1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몇달 새 1천24개의 인터넷주소(IP address)를 등록했다고 IT전문미디어 IDG가전함.
- IDG에 따르면 평양의 ‘스타 조인트 벤처’사가 관리하는 이들 인터넷주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군사적 필요나 정부 차원의 용도에 따라 쓰일 것으로 추정
- IDG는 북한의 이번 인터넷주소 등록에 대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정보 블랙홀’로 불리던 북한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세상으로 한 걸음을 뎀 셈이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
- 현재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차이나넷컴’의 통신망을 끌어와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가능한 인원이 수천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북한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내각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각각 일본과 중국의 서버를 쓰고 있음.
- ‘스타 조인트 벤처’는, 2002년 북한에 처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던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IDG는 설명

● 北, 유해 폐기물 수입 합영기업 설립(6/15, 연합뉴스)

- 북한 조선령봉연합회사와 대만 타이중현(臺中縣) 소재 D 기업이 서명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양사는 합작으로 라선시에 ‘R 합영기업’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15년간 D사로부터 금속폐기물 300만t, 산업폐기물 200만t, 폐유 60만t 등 유해 폐기물 560만t을 수입해 처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짐.
- 이런 사실들은 조선령봉연합과 D사 간 계약서 이외에 ▲라선시인민위원회 발급 R사 기업등록증 ▲타이중현 정부 발급 D사 폐기물처리 허가증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발급 R사 폐기물수입 허가서 등을 통해 드러남.

- 타이중현 정부가 작년 4월 13일 D사에 발급한 폐기물처리 허가증에는 수은, 비소, 카드뮴, 납, 육가크로뮴 등이 들어 있는 유해 폐기물을 R사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또 1월 16일자로 된 라선시인민위 발급 R사의 기업등록증에는 R사의 소재지는 라선시 송평동(松平洞), 법정 대표는 대만 국적의 L씨, 기업 형식은 합영, 업종은 공업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돼있음. 같은 해 3월 발급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폐기물수입 허가서에는 R사가 15년간 560만t의 폐기물을 수입해 연료, 건설재료로 재활용한다고 돼있음.

다. 사회문화

● 北, 식량배급 포기, 주민 자급자복 지시(6/14, 좋은벗들)

- 북한 노동당이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하순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을 인정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14일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5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재 조선의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냈다”고 주장
- 법륜스님에 따르면 이 지시는 화폐개혁 이후 식량 사정이 계속 나빠져 당분간 국가 차원의 식량 공급이 어려우므로, 식량을 배급받아온 주민들은 각자 알아서 식량을 구하고 당, 내각, 국가보위부 등 관련 기관들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륜 스님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기대했던 식량 지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노동당이 할수 없이 ‘5.26 당 지시’를 내린 것 같다”면서 “이번 식량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어 1990년대 같은 대규모 아사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함.

● 北통신, 브라질전 결과 신속보도(6/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16일(한국시각) 새벽 벌어진 G조 조별리그 1차전 북한과 브라질과의 경기 결과를 종료 6시간 후에 신속히 보도
- 통신은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조선팀과 브라질팀 사이의 경기가 평양시간으로 16일 새벽에 있었다”면서 “경기 시간 88분경 정대세

- 선수가 머리받기(헤딩)로 연락(패스)한 공을 지윤남 선수가 문전으로 돌입하면서 강하게 차넣어 득점했다”고 후반 44분에 터진 득점 장면을 상세히 전함.
- 통신은 또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경기 후반전에 조선 선수들은 먼저 두 점을 실점한 상태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좋은 차넣기(슈팅) 기회를 마련했다”며 북한팀의 경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北통신 ‘향토음식 전문식당, 평양서 인기’(6/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 시내의 각 도 향토음식 식당들이 손님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의 유명한 식당 이름을 그대로 붙인 ‘압록각’(량강도), ‘신흥관’(함경남도) 등 9곳을 소개
- 통신은 “최근 개건(리모델링)한 ‘경암각’(황해북도)에서는 보기만 해도 구미를 돋구는 약밥, 경단, 추어탕, 녹두지짐 등을 봉사(판매)하고 있다”면서 “실처럼 기늘면서 질기고 매끈매끈한 국수발에 명태회를 꾸미로 얹은 ‘신흥관’의 감자농마회국수는 눈맛 좋고 먹음직해 인기”라고 말함.
- 통신은 또 “찰수수지짐, 산나물볶음밥 등을 봉사하는 ‘강계면옥’(자강도)을 비롯해 ‘압록강각’(평안북도), ‘장수각’(평안남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그칠새 없다”고 덧붙임.

● 北 ‘우리축구 다시보게 하는 득점’(6/16, 조선중앙TV)

- 새벽 벌어진 G조 조별리그 1차전 북한과 브라질 경기를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녹화중계하면서 2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44분 지윤남(34, 4.25체육단)의 통쾌한 만회골을 “우리 축구를 다시 쳐다보게 하는 득점장면이다,”라고 소개
- 이날 해설자로 나온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비록 2대1로 패했지만 세계 최강 브라질을 놀라게 한 지윤남의 득점과 관련, “세계적인 문지기도 어쩔 수 없는 위력한 차넣기 였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브라질의 방어선을 뚫고 득점한 것은 우리 축구를 다시 쳐다 보게 하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득점장면이다”고 평가
- 리 교수는 전반전에 득점 없이 0대0이 지속되자 “브라질이 현재 국제순위 1위이고 우리가 105등인데 이렇게 보면 상대가 되지않고 많은 득점 차이로

- 경기가 운영되리라 보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현재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팀의 선전에 기대감을 나타냄.
- 브라질의 첫 골에 대해 북한 아나운서는 “리명국 선수가 각도를 좀 줄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간 감이 있다”고 말했으며, 리 교수는 “거의 각도가 없는데 뒷선에서 달려 들어가면서 깎아 찼다. 우리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 아까운 실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냄.
 - 리 교수는 특히 브라질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의 태클로 넘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요란한 동작”, “엄살동작”이라거나 “넘어질 정도로 차진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주심이 경고를 줘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함.
 - 또 후반 40분경 정대세 선수가 브라질 골대로 돌격해 들어가다 브라질 선수가 공을 차내면서 넘어지자 “11m 차넣기를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임.

● **北박두익 ‘새로운 축구신화 창조하길’(6/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꺾어 파란을 일으켰던 북한의 축구영웅 박두익(74)이 남아공 월드컵의 북한-브라질전을 지켜본 후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선군조선의 새로운 ‘축구신화’를 창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함.
- 박두익은 “강팀과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조선 선수들이 미덥다”면서 “정대세 선수와 지윤남 선수의 재치있는 2인 결합에 의해 이뤄진 통쾌한 득점은 축구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것”이라고 칭찬함.
- 김영규(45) 체육과학원 연구사는 조선중앙통신에 “월드컵을 다섯번이나 쟁취한 브라질팀과의 경기에서 조선 선수들이 발휘한 정신력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룰 중요한 담보”라고 평했으며, 조선체육대학 학생인 한성철(23)도 “경기장을 중황무진하는 조선 선수들을 보고 격동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는 소감을 내놨음.

● **北통신 ‘평양서 신석기 토기 발굴’(6/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에서 신석기 시대의 ‘출산무늬그릇’이 발굴됐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그릇은 주둥이 직경이 28cm, 몸통 직경이 18.8cm이고 높이

- 가 30cm 정도인 질그릇으로 주둥이쪽에는 점무늬와 톱날무늬가, 몸통에는 출산무늬가 장식돼 있음.
- 통신은 “몸체부분에는 두 개의 평행사선이 서로 교차돼 두줄로 새겨져 있고 매 평행사선 안에 짧은 사선을 촘촘히 채운 것”이라고 출산무늬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유적에서만 이 무늬 유물이 나왔다고 덧붙임.

● **北식량난 심각…집단 아사 농촌까지 확산(6/17, 좋은벗들)**

- 좋은 벗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26일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을 선언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소식지에 따르면 실제로 황해남도 도당이 조사한 결과, 연안군의 오현리와 풍천리, 청단군 등의 농촌 마을에서는 약 60%의 농가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배천군의 한 협동농장에서는 15명이 근무하는 한 분조에서 10명이 먹을 것이 없어 결근했다고 함.
- 소식지는 “작년에도 나쁜 기후 조건으로 이들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다 한 해 수확의 3~4개월치를 군량미로 걷어가는 등 이것 저것 제하는 것이 많다 보니 농민들 먹을 식량이 먼저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
- 이어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 일하러 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산나물과 풀을 캐러 산으로 가는 농민들이 많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옥수수 파종이나 모내기 못한 농장이 많아 올해 농사에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 **北주민들, TV중계 보러 일찍 퇴근(6/17, 조선신보)**

- 신보는 북한에서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 조선중앙TV가 경기를 녹화 중계하는 오후 9시께면 “전차나 버스가 텅 빌 정도”라고 전함.
- 이어 신보는 월드컵대회 개막 이후 “평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겨, 많은 시민들이 일찍 집으로 퇴근해 가족들과 경기 방송을 보고 있다”고 소개

- 평양 송신평복공장 간부인 조충성(36)씨는 “늦은 저녁까지 진행됐던 생산작업을 최근에는 저녁 8시 전에 끝내고 있다”며 “이는 매일 계획수행을 다그쳐 끝내고, 월드컵 방송 시간 전에 퇴근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함.

● **북한서 중고노트북 인기…밀수 늘어(6/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노트북이 인기라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최모씨는 “요즘 노트북 밀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주문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 못할 정도”라고 말함.
- 함경남도 혜산 장마당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파는 한 여성도 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고 노트북 가격이 20만원 안팎인데 이는 중고 텔레비전보다도 싼 것이어서 사람들이 중고 노트북을 더 선호한다”고 전함.
- 방송은 충전 배터리가 내장된 노트북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TV나 DVD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당국의 불시 검열시에도 쉽게 감출 수 있다고 전함. 그러나 밀수한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노동단련대에 수용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고위층을 중심으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진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우표들(개별우표 1종) 및 각 종류의 공룡들을 반영한 새 우표(무음전지 1종) 발행(6/14, 중통)
- 北 각지 농촌들, 기본면적의 벼모내기 완료 보도(6/17, 중통)

2 대외

● **엑스포 북한관 ‘北 축구선수 대우 좋다’(6/18, 연합뉴스)**

- 중국 상해청년보(上海青年報)는 엑스포 북한관의 책임자인 김은규(31)씨가 자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축구선수들의 월급이 12위안(2천100원)에 불과하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는 말도 안 된다.”며 선수들은 평소에도 국가로부터

- 특별 수당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
- 김씨는 “북한 선수들은 성적이 좋을 경우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포함해 특별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면서 “과거 199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정성옥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훈장과 아파트, 벤츠 승용차 등을 하사했다”고 말함.
 - 북한 대표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일부러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함.

기타 (대외)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김형준 부상), 6/12 카이로에서 이집트 외무성 대표단과 회담(6/14, 중통)
- 北 노동당 대표단과 튀니지 인민통일당 대표단 회담, 6/15 김영일 부장 등 참가자 진행(6/15, 중통·조선신보)
- 北 피바다가극단, 가극 ‘홍루몽’ 중국 중경시 중경대극원에서 공연(6/13~6/14) 진행(6/17, 중통)

3 대남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위험천만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하라’(6/14, 평방)
 -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는 대결미치광이’(6/14, 중방)
 - ‘불순한 모략극의 진상을 가리우려는 비열한 탄압책동’(6/16, 중방)
 - 대통령의 ‘국정연설’(6.14)을 시비하며 천안함 피격사태는 “韓-美의 날조극, 모략극”이라고 持續 강변과 반정부 선동(6/17, 중통·평방·노동신문)
 - 韓·美·日 국방장관 회담(6/5, 싱가포르)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구실로 3각 군사동맹 부활, 외세공조’라고 주장하며 “우리(北)는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再次 위협(6/17, 중통·민주조선)
 - 천안함 피격사태 관련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주장(6/17, 중통·노동신문)

● 6.15실천위 ‘평화수호, 통일의 길은 6.15 이행뿐’(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6.15공동선언 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 “민족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로 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다”면서 “6.15선언에 역행해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책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이 공동성명은 또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통일 의지와 신념으로 자주통일과 민족 대단합을 위한 통일애국 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적극 펼쳐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말함.
- 원래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는 남측위, 북측위, 해외위 3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 북측이 발표한 성명은 남측위와 팩스로 사전 조율됐으나, 일부 문구는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남측위 관계자는 “A4용지 2장 분량의 성명 내용 중 ‘외세’, ‘반통일 세력’에 관한 두 군데 세부 표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남과 북이 직접 만나 세부 문안을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미합의 표현이 일부 들어간 듯한데, 6.15선언의 의의를 강조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전체 맥락은 같다”고 말함.

● 北TV, 南-그리스전 중계...‘호평’(6/14, 조선중앙TV)

- TV는 14일 저녁, 이틀 전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녹화중계함.
- 해설로 나선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전반 초반에 터진 이정수의 골에 대해 “(그리스) 방어수들이 키가 186, 185cm로 다 높은 키들인데 정확히 맞추지를 못하고 14번 방어수 이정수 선수가 잘 들어가면서 받았다”고 높이 평가
-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도 “방어수가 공격선까지 나와서 별차기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비교적 잘했다”고 지적
- 리 교수는 “현재 국제축구연맹 국제순위를 보면 그리스팀은 13등권내에 있고, 32개 팀에 있어서도 10번째에 있다”며 “남조선팀을 보면 국제축구연맹

순위에서는 47위 그리고 32개팀에서는 29번째로 지금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전망하기도 함.

- 중앙TV는 한국의 그리스전 전반 45분간 경기를 약 30분 정도로 줄여서 중계함.

● **北정당·단체 ‘남북관계 타개책, 6.15실천뿐’(6/1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의 정당과 단체들이 6.15공동선언 10주년 연합성명을 내고 “현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 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연합성명은 6.15공동선언을 ‘지난 시기 모든 북·남 합의들을 총집대성한 통일의 최고 기치’로 평가하고 “북·남 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속과 정견, 과거를 불문하고 손잡고 나갈 것이지만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짓밟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성명은 또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6.15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 민족 문제와 북남 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의 김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도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보고서에서 “반통일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조성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북남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폈음.

● **北 차석대사 ‘우리가 했다고…어방도 없다’(6/15, 연합뉴스)**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14일(현지시간) “비과학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 어방도 없다”고 말함.
- 박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빅팀(victim,피해자)”이라면서 “그러

- 니까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해 본 뒤에 안보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
- 그는 또 한국의 인터넷에서 떠도는 각종 천안함 관련 루머들을 열거하기도 했고,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축
 -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박 대사는 “그렇게 큰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 추진체가 하나도 깨져 나간 데 없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 또 글 쓰는 사람이면 누가 쓸 수 있는 것이 1번 아닌가. 짠 물속에서 얼마나 있었나. 내 기억에는 5월 14일 발견해 꺼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 50일 동안 짠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글씨가 그대로 있나. 과학자들은 그 정도 폭발이면 최소한 300도에서 1천도가 넘어간다는데 글자는 130도 내지 200도 전에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한다.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 어방도 없다.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우리 보고 했다고 하니 우리가 빅티م 아닌가. 좋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 결과 나온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초청하면서 우린 왜 초청 안 하나. 그 이유가 뭐냐. 과학적으로 했다면 겁날게 뭐 있나.”
 - 다음날 열릴 북한의 기자회견에서 합조단 결과에 대한 반박논리나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를 내세울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조사단 보내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우리가)조사 하기 전에 안보리에서 남조선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리가 선불리 나서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브리핑장에서도) 했다.”고 함.
 - 한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안보리 이사국들에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던데, 북한 측도 받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난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성원들(안보리 이사국들)한테 다 갔나. 그거야 뭐 의혹이 있다는 거야...그런데 뭐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니까.”라고 답변함.
 -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볼때 어떤 생각이 드나에 대해서는 “내가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은가. 어쨌든 간에 의심이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비과학적으로 사실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보자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의심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좌초라든가, 옛날 70년대에 물어 놓은 기뢰라든가, ‘프렌들리 화이어’라고도 하고. 왜 미국하고 남조선 사이에 잘못 해 가지고 쏜 것 아닌가 하는 것 말이다.”라고 함.

● **평양시민, 南 승리에 환호(6/15, 조선신보)**

- 신보는 남한의 축구대표팀이 2010남아공월드컵 첫 경기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북한 주민들도 환호했다고 전함.
- 신보는 전날 조선중앙TV가 오후 9시부터 1시간 가량 ‘한국 대 그리스 전’을 녹화중계한 소식을 전하면서 “동족이 출전한 경기는 다른 경기보다 큰 관심을 끌었고 (평양) 시민들은 예외없이 남조선팀을 응원했다”고 밝힘.
- 한 평양시민은 인터뷰에서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이 이기면 기분이 좋지, 패하는 것을 누가 좋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
- 중앙TV는 12일 밤 남아공과 멕시코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일 주요 경기를 녹화중계하고 있고, 평양시를 가시청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방영되는 ‘만수대TV’는 13일 ‘월드컵 참가팀 분석’, ‘2010년 월드컵을 노리는 축구강팀’이라는 제목의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천안함 조사결과 날조…소설같은 얘기’(6/16, 연합뉴스)**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천안함과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 조사 결과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스케줄과 미국의 이 지역 이해가 맞물린 예정된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우리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하니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조사하면 분명한 원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합동조사단에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나흘 전에야 참여하거나 기술적 자문만을 했을 뿐”이라며 “조사 결과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너무 많다”고 밝힘.
- 신 대사는 “한국 위성이 실패한 원인도 우리의 어뢰 공격 때문인가”라면서 “이는 정말 웃기는 조사결과이고 소설 같은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유엔이 대북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우리는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후 대응 조치는 우리의 군대가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신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시점에서 방북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우리 조사단이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일축했음.

[6.15/10.4선언 이행 관련 우리 정부 및 미국 비난]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패당의 반통일 책동으로 인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6/15, 중방)
-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반대하면서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이OO 정권의 흥계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 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데서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음”(6/15, 평방)
- 6.15공동선언은 “김정일의 협상술이 가져온 특기할 사변 등”으로 美化粉飾하며 “6.15·10.4선언 고수 이행,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민족자주통일” 선동 (6/15,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21-06.27

6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일정도 새나?…北언론보다 앞서 전해(6/21, 연합뉴스; 데일리NK)**
 - 북한 내에서 초특급 기밀로 다뤄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일정을 데일리NK가 북한 매체에 앞서 가장 먼저 보도해 주목
 - 데일리NK는 지난 18일 오후 5시 53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17일 신의주 화장품공장을 방문한 김정일이 이틀째 일정으로 18일에는 신의주 신발공장을 시찰한 후 송한동에 위치한 ‘특각’(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대표적 매체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약 6시간 후인 19일 0시 11분께 김 위원장이 신의주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평안북도에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을 시찰했다고 전함.
 - 데일리NK 관계자는 “신의주 시내에서 김정일의 현지지도 차량 행렬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본 소식통으로 전해들은 정보”라면서 “중앙통신이 보도한 시찰 장소가 우리가 전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만 신의주의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은 김정일의 송한동 별장 부근에 있다”고 말함.
 - 데일리NK는 첫 보도 다음날인 19일 속보에서 “김정일의 이번 신의주 일대 현지지도는 오늘 오전 7시 내부 유선방송만인 ‘3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면서 “김정일은 오후 3시까지 신의주에 머물다 평양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또 20일에도 “김 위원장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할 때 ‘김대장’(김정은 지칭)이 수행해 노동자들을 만났다”면서 “김 위원장 호위와 현지지도 업무를 대부분 김대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해 말함.
-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9월 상순 소집(6/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발표하고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를 9월 상순 소집키로 했다고 통신은 밝힘.

- 통신은 23일 자로 발표된 결정서를 인용,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를 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전함.
-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하는 것은 1958년과 1966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무려 44년 만임.

김정일동향

- 6/20 김정일, 제593군부대 지휘관 강습소 시찰 및 12월5일 청년광산·북중기계연합기업소·북중전국공장·용천군장산협동농장 등 평北道 여러 부문사업 현지지도(6/20, 중방)
 - 김평해(평북 黨 책임비서), 김경희·태중수(黨 부장), 주규창·이재일(黨 제1부부장), 현철해·이명수(軍 대장) 등 동행 및 최중건(平北 인민위원장), 이철만(平北 농촌경리위원장), 문철(平北 지구계획위원장), 백성남(용천군 黨 책임비서) 등이 현지영접
- 6/24 김정일, 평南 평원군 ‘강정화’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6/24, 중통)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黨사업 시작(1964.6.19) 46돌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6/18, 중방·중통)
 - 최태복(黨 비서/보고)·김기남(黨 비서/사회) 등 참가
- 北, 訪北 한상렬 목사 환영 군중집회(청년중앙회관) 진행(6/23, 중방·중통)
 - 안경호(6.15실천 북측위원장)는 환영 연설에서 “보수패당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우리(北)와 억지로 연실시키고 있다”며 현 정세는 “6.15선언 고수 이행, 보안법 철폐, 反美투쟁” 등 선동

나. 경제

● 北원화가치 계속 하락…교환기능만 남아(6/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현재는 교환기능만 남아 있고 저축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사라졌다고 전함.
- 방송은 청진, 단동 등에서 전화로 접촉한 북한 주민들의 말을 인용, “장마당(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데다, 위안화로 사면 값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면서 “반대로 북한 돈을 내면 오히려 비싸게 받기 때문에 아이들도 위안화만 찾는다”고 말함.

- 방송은 이어 “서민들의 경우 시장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만 북한 돈을 찾아 쓰고 저축을 위해서는 위안화를 모은다”면서 “보위부나 간부 가족들이 먼저 중국 돈을 앞다퉈 모으는 상황이다 보니 위안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방송은 “아직 시중에 충분한 돈이 풀리지 않은 데 따른 착시현상일 것”이라면서 “작년 11월 말 화폐교환이 단행되고 그 다음달에만 기업소 등에 월급이 제대로 나가고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기타 (대내 경제)

- 北 농업과학원, 나노기술에 기초한 효능높은 ‘농업용 살균제’ 개발 소개(6/24, 중통)

다. 사회·문화

● 北주민 5~6월 中친척 대거 방문(6/21, 연합뉴스; 조글로 미디어)

-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함경도 등 중국 접경지대 주민의 중국 친척 방문을 허용하면서 주민들이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등지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재중동포 온라인 매체인 조글로 미디어가 보도
- 조글로 미디어는 길림신문을 인용, “조선(북한) 정부가 변경지대 주민들의 친척 방문 개방 시기를 5월로 변경하고 주민들이 약 한 달간 중국으로 친척방문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서 “국경 개방 마감일이 돌아옴에 따라 훈춘시 해관(세관)에는 북한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함.

● 北선수들, 결전 앞두고 국수파티(6/21, 조선신보)

- 신보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발 기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남아프리카의 재료로 손수 만든 국수를 대접하자 선수들은 별맛이라며 맛있게 먹었다”고 전함.
- 안희정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는 “선수들이 우리 국수를 먹고 싶을 것 같아 준비했다”면서 “국수를 먹고 포르투갈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신보는 덧붙였다.

● **北TV, 포르투갈전 패배 생중계(6/21, 조선중앙TV)**

- 21일 44년만에 2010월드컵 경기에 나선 북한 대표팀의 포르투갈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조선중앙TV의 캐스터와 해설자는 전반 29분 터진 포르투갈의 첫 골에 큰 아쉬움을 표함.
- 이날 해설자로 나온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첫골이 터지기 전까지) 경기운영이 비교적 공방전이 비등하게 전개됐다”며 2선에서 침투해 골로 연결한 메이렐르스를 막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을 전함.
-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자기 경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잊지 않았음.
- 후반전이 시작되고 시망과 알메이다의 골이 잇달아 터지자 리 교수는 “우리팀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잃은 점수를 회복하려는데로부터 거리 간격이 공격선과 방위선이 좀 늘어난 감이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속공에서 이뤄진 실점”이라며 공격을 펼치다 잇달아 골을 내주자 아쉬워했음.
-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북한 아나운서는 “포르투갈팀은 두 번 경기를 해서 점수 4점이 됐다”며 “지금까지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중에서 우리팀과 포르투갈팀간의 경기를 실황중계해 드렸다”며 중계를 마침.
- 리 교수는 경기를 중계하면서 호날두를 가리키며 “2008년 세계 최우수 축구선수상을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았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몸 값이 가장 높은 축구선수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으며 북한 수비벽에 막혀 고전하자 “호날두가 시원한 경기장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팀의 선전을 우회적으로 칭찬하기도 함.

● **평양시민들, 포르투갈전에 크게 실망(6/22, 조선신보)**

- 신보는 평양 시민들은 북한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팀에 7대0으로 참패하자 크게 실망했다고 전함.
- 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중앙TV가 21일 저녁 8시 반부터 실시간 중계한 포르투갈전을 지켜보던 평양시민들의 기대와 흥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과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며 “기대가 부풀어 오른 만큼 실망도 컸던 모양으로, 상대팀의 높은 기술을 득점수로 확인한 그들은 말수도 적었다”고 전함.

- 신보는 그러나 “시민들 속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브라질팀과의 선전이 강렬한 잔상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고 있다”며 “시민들은 ‘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 반드시 1승을 거둬 조선의 기상을 떨쳐야 한다’고 성원을 보내고 있었다”고 덧붙임.
- 한편 신보는 이날 별도의 케이프타운발 기사에서 북한 축구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정대세(26.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포르투갈과 시합이 끝난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동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소개
- 정대세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반은 비등비등하다고 느꼈는데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실수가 많아졌다”며 “1966년 (잉글랜드) 대회의 설욕을 다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비 때문에 양팀간 기술의 차이가 나타난 것도 패인의 하나로 꼽으면서 “코트디부아르와 다음 시합은 반드시 이겨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보는 덧붙임.

● 北지윤남 선수 집에 ‘축하인사’ 쇄도(6/23, 조선신보)

- 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2대1’로 석패한 브라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회골을 터뜨린 북한팀 “지윤남(34, 4.25체육단) 선수가 사는 평양 대동강구역 룡라2동 아파트로 동네 주민들은 물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연일 찾아와 지 선수의 아내 한춘영(30)씨를 축하해 주고 있다”고 전함.
- 지 선수 부부가 속한 룡라2동 9인민반도 지 선수의 경기 활약상을 아파트 현관에 ‘특보’로 게시하고 귀국 후 지 선수에게 줄 기념품과 환영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임.
- 한씨는 “경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민반, 직장은 물론 각지에서 축하 전화와 전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나의 손을 잡고 축하해주는데 이제는 손목이 아플 정도”라고 말함.
- 신보는 “원래 지방 출신인데 지난해 평양에 새 살림을 차린 지 선수 부부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금실 좋은 ‘원앙새 부부’로 불린다”면서 “부인 한씨는 ‘앞으로 태어날 자식도 남편의 뒤를 이어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교육성→교육위원회’ 개편(6/2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조선에서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안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내온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3일 발표됐다”고 밝힘.
- 북한의 교육담당부처는 1998년 9월 이전까지 정무원 내 교육위원회가 맡아 오다가 내각의 교육성으로 바뀌었으며 이번에 다시 원래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재편한 것임.

● 北김정일 생모 고향 ‘민심홍홍’…범죄도시 전략(6/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가 ‘범죄도시’로 전략했다고 방송은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한 주민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이들이 멀다하고 발견돼 주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살인과 인신매매, 마약밀수 같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함.
- 회령시에 사는 대학생 최모씨는 “도시 인근의 창효저수지에 매일같이 시신이 떠오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신 훼손이나 부패가 심해 누구인지 알아내기도 어렵다”고 방송은 전함.
- 방송은 급증하는 살인사건 때문에 인민보위대 경비인력이 늘어나고 보안서의 잠복요원도 투입되지만 살인범 검거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덧붙임.
- NK지식인연대도 지난 5월 김정숙 생가에 방화를 시도하다 청년 2명이 체포됐으며 회령시의 홍홍한 분위기를 전했다.

● 北열차 정전으로 산속간혀 8명 아사(6/25, 좋은벗들)

- 북한의 혜산과 평양을 오가는 열차가 지난 3월 말 량강도의 백암역을 통과하고 깊은 산속에서 정전으로 멈춘 뒤 9일간 움직이지 못해 8명이 굶어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좋은벗들은 전함.
- 이 단체는 소식지에서 “열차 승객들은 집을 떠날 때 준비해온 ‘도중식사’를 먹었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면서 “혹시나 기차가 다시 움직일까 싶어 그대로 머물던 중 닳새가 지나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 9일간 8명이 굶주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힘.
- 소식지는 이어 “사고 후 4일째 되던 날 량강도 도당이 구조 지시를 내렸으나

- 해산시 시당이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도당 지시가 떨어지고 5일이 지난 뒤, 다시 말해 사고 발생 9일째가 돼서야 움직였다”고 덧붙임.
- 이 사고 소식을 접한 백암군과 해산시 주민들은 “철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강성대국이 아니라 멸망대국으로 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에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지는 전함.

● **北, 한국 16강 진출 보도(6/2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지난 23일(한국시각) 열린 한국 축구대표팀과 나이지리아팀 간 월드컵 B조 리그 최종전을 이틀 뒤인 25일 밤 녹화중계하면서 한국팀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사실을 보도
- 북한 아나운서는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2대2 동점을 기록했다. B조의 순위를 보면 아르헨티나팀이 세 번 다 이겨서 점수 9점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남조선은 한번 이기고 한번 비기고 한번 패해서 점수 4점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팀과 남조선팀은 다음 단계에 올라가게 됐다”고 소개
- 이날 중계에서 후반 4분 박주영(25, AS모나코)의 프리킥 득점과 관련, 북한 아나운서는 “아주 꾸밈(짜고 만들어냄)이 좋았는데 10번 박주영 선수의 차기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했고, 해설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도 “오른발 발등 꺾아차기로 낮고 빠르게, 문지기가 어쩔 사이 없이 득점시켰다”고 평가함.
- 또 리 교수는 중계 도중 “이번 경기는 남조선팀에게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하는 운명적인 경기”라고 소개했고, 아나운서도 “남조선팀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다음 단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수를 바꿔가면서 최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함.

● **北TV, 코트디부아르전 녹화중계(6/26,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조선중앙TV는 26일 저녁 북한과 코트디부아르와의 월드컵 조별예선 G조 마지막 경기를 녹화중계함.
- 조선중앙TV는 0대3으로 진 코트디부아르전 전·후반 전체를 이날 오후 8시 45분부터 편집 없이 방송했는데 북한 아나운서는 “이렇게 해서 이 경기에서 코트디부아르팀이 이기긴 했지만 다음 단계(16강) 진출은 불가능하다. 지금

- 까지 우리팀과 코트디부아르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렸다”고 말하면서 증계를 마침.
- 이날 증계에서 아나운서와 해설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후반 30분 북한의 주공격수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탈레)가 골키퍼와의 단독 찬스에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자 “아! 아깝습니다”를 연발하면서 “완전히 좋은 기회였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함.
 - 정대세는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데 대해 “내가 의도한 대로 볼을 다룰수 없었다. 큰 무대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것이 지금 나의 능력이다”면서 “앞으로 국제경기의 경험을 더 많이 쌓고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북한주민 1명 서해로 남하(6/24, 연합뉴스)
- 경희국 '산울림' 공연, 6/12~6/20 平南 안주에서 진행(6/21, 중방)
- 옥류관에 요리전문식당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6/21, 중방)
-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함경남도 함흥대극장에서 공연(6/22, 중통)

2 대외

● 北역사학회, 美에 ‘평화협정 체결’요구(6/21, 신화통신)

- 통신은 북한의 조선역사학회가 20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
- 이 학회는 규탄서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음에도 미군은 유엔군이란 명목으로 한국에 주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북한 및 유엔의 대결구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
- 또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산결의안이 통과돼 유엔사가 존재의 명분을 잃었음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철수시키기는커녕 조직을 강화해 유엔의 신성한 사명과 인류의 양심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
- 학회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선결조건이자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가늠하는 시

금석”이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즉각 철수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

● 北 김창룡 국토상 등 47명 대거 방중(6/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 5월 3~7일 방중 이후 47명의 북한측 실무대표단이 10일 가량 중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 방중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21일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우호대표단 47명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지난 12일 방중해 지금까지 머물고 있으며, 2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김창룡 단장이 직책은 국토환경보호상이지만 실제로는 국토분야 관련 업무에 비중이 있는 만큼 헨진과 다롄 등 개방구에 대한 방문을 통해 그와 관련한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종의 김 위원장 방중 후속조치로 보인다”고 말함.
- 이어 “이번 방중단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포함돼 있으며 정치분야보다는 경제분야의 인물들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 北외무성 ‘美, 비상중상 용서 안해’(6/2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우리를 비방중상하는데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남조선의 일부 언론이 우리가 월드컵경기를 무단TV중계방송한다는 허위모략보도를 날린 것을 가지고 미국무부 대변인 크롤리라는 사람이 무엄하게도 우리를 ‘범죄국가’라고 걸고 들었다”며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것은 해당 국제기구들과의 합의에 준해 진행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말함.
- 그는 “신성한 주권국가에 대하여 감히 범죄국가라고 악담한 것은 극도의 반공화국 적대열에 들뜬 망발”이라며 “전략적 인내”라는 보자기로 속수무책을 가리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회피하려는 현 행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미국이 대화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 역시 촉구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

나 미국이 비방증상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식의 계산방법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임.

● 北신문, 日총리 ‘국교정상화’ 발언 비난(6/23, 조선중앙통신)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 국회에서 행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북한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체면유지, 정치적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일(북일)관계의 근본을 외면한 부당한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극우의 반대파들의 압력과 반발을 모면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민심낙기”라면서 “일본 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납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며 과거청산을 떠난 조일 관계 정상화 타령은 기만이고 광대극”이라고 주장
- 신문은 또 별도의 논평에서 과거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 “일제의 강제연행, 납치 범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우리 인민은 과거 일본의 반인륜적 특대형 인권유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경고

● 北 억류 미국인에 전시법 적용, 추가조치 검토(6/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30)씨에게 전시법을 적용해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인도주의적으로 고프즈를 관대히 석방해줄 것을 미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정세 속에서 그런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형을 어떻게 가중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전함.
- 이어 “미국은 천안호 사건을 가지고 국제적 압력 캠페니아(캠페인)를 벌리면서 조선을 계속 적대시하고 있다”며 “조선은 이미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그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단호히 언명한 바 있다”고 덧붙임.

● **北보위부 중국인 5명 납치(6/26, NK지식인연대)**

- 지식인연대는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의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2명은 당초 보위부 조사를 받던 6명 중 일원이라고 밝힘.
- 이 단체는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 “보위부는 지난 20일 자강도 만포시에서 한국 물품을 조달하던 중국인 1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5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보위부는 즉각 중국 현지에 침투해 이들 5명을 전원 납치해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남한 상품을 북한에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했다”고 주장
- 단체는 또 “조사과정에서 이 중 2명은 풀려났지만 지린(吉林)성 통화(通化) 출신 2명은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숨지고, 지린성 옌지(延吉) 출신 2명은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결과 이들이 반입한 남한 상품 중에는 최신 이동전화도 있었으며, 이들이 거래하던 남한 사람들의 연락처도 발견됐다고 한다”고 덧붙임.
- 이 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옌지 등 일부 북·중 접경지역은 낮에는 중국 땅이지만 밤에는 보위부 세상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보위부원들이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납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기타 (대외)

- 美 국무장관의 中南美 방문 중 對北 언급(북한은 세계평화에 위협 등) 관련 “다른 나라들로부터 反北적대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속심”이라고 비난(6/22, 중통·노동신문)
- 美 중앙정보국 소속 의사들의 테러혐의자 등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며 미국의 “국제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6/22, 중통·민주조선)
- 韓-日협정 체결(1965.6.22)은 “미국의 조종아래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과 사대매국노들의 매국배족적 흥계에서 벌어진 침략과 매국의 흥정판”이라고 무효 주장(6/22, 평방)
- 北 서세평 리히텐슈타인 공국 駐在 대사, 6.17 駐在國 왕세자에게 신임장 제출(6/23, 중방)
- 박의춘 외무상, 6/22 토고 新任 국무상 겸 외무 및 협조상 ‘엘리오프 오인’에게 축전(6/23, 중통)
- 중국 산둥성 친선대표단(단장 : 왕민, 중국 공산당 산둥성총 비서장), 평양 도착(6/23, 중통)
- 미제가 “1945년 9월 8일부터 60년간 北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액은 64조 9,598억 5,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계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6/24, 중통)

3 대남

- 北 신문, 玄통일 국회 ‘급변사태’발언 맹비난(6/2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노동신문이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날 기념행사에는 머리도 들이밀지 않고 왕청같은데(영똥한 데) 나타나 모략적이며 허황하기 그지없는 ‘급변사태’설을 다시 입에 올렸다”고 비난했다고 전함.
 - 현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언급하기 민감한 용어이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답변했음.
 - 신문은 또 현 장관이 지난 16일 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2~3년이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자극하는 수작이고 도발적인 악담”이라고 비판함.

- 北 통신, 6.25전쟁 ‘북침론’ 재차 주장(6/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6.25전쟁 6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남조선 괴뢰군은 미군사고문들의 지휘 밑에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며 북침론을 재차 주장
 - 통신은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이다’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6월25일은 미제가 세계제패 야망 밑에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어 “미제가 제아무리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쓴다고 해도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며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선군으로 다져진 백두산 혁명강군의 정의의 총검은 추호의 자비심도 없이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도 이날 ‘공동성토문’을 발표해 6.25전쟁 북침론을 주장하면서 “온 민족은 반미, 반전평화의 기치

를 높이 들고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밝힘.

● 北, ‘천안함 군사정전위 논의’ 제안 거부(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군사정전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힘.
- 통신에 따르면 군사정전위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는 이날 유엔사에 회답 통지문을 보내 “군사정전위를 내세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미군이 말하는 군사정전위 조사결과는 괴뢰당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대변할 것”이라고 밝힘.
- 북측 대표는 이어 “우리는 검열단을 남조선에 파견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북남 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 작정이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 제안에 응한다면, 즉시 북남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북측 대표는 실무접촉이 열리면 ▲검열단 파견 문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대표단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訪北 한상렬 목사, 6/22 인민문화궁전에서 南 정부 비난(6/22, 중통·중방)
 -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과 서해상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외세공조를 민족공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 우리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태 유엔 안보리 ‘설명회’ 진행 관련 “저들이 꾸민 사건을 정당화,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범위에서 反北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반역행위”라고 비난(6/22, 중통·노동신문·평방)
- KBS방송 인용, 南 정부의 10월 부산항과 주변해역에서 北을 대상으로 한 PSI 훈련 계획 비난(6/22, 중방)
- 통일부의 전방답사 청소년 ‘평화통일대행진’ 추진 관련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청년학생들을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한 사전준비책동”이라며 “외국 대학생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주입시키고 그들을 통한 반공화국 공조에 박차를 가하려는 속심”이라고 비난(6/23, 평방)
- 對北 심리전 재개준비 관련 ‘직접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단호한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1의 대응이 아니며,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고 위협(6/23, 중방)

06.28-06.30

6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노동신문 ‘당 중앙’ 언급…(6/30, 노동신문)

- 신문은 오는 9월 44년 만에 개최기로 한 당 대표자회와 관련한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 중앙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

기타 (대내 정치)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道 반미군중대회들, 6/27~28 平南·北道, 양강도, 지강도, 黃南·北道에서 진행(6/28, 중통)
- 김일성 ‘카툰회의’ 조직지도 80돌 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최태복 등 참가下 진행(6/29, 중통)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평안북도·낙원기계연합기업소·12월5일청년광산·용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 진행(6/30, 중방)
- 北, 민주공고 독립 50주년 기념집회 평양에서 개최(6/29, 중통)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반미군민대회, 6/28~30 강원도·咸南·咸北·남포시에서 각각 진행(6/30, 중통)
- 訪北 한상렬 목사, 6/30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상봉(6/30, 중통)

나. 경제

● 北…주체비료공장서 폭발사고, 30여명 사망(6/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지난 4월 하순 큰 폭발사고가 발생, 노동자 30여명이 사망
- 친척 방문을 위해 신의주에 온 안주 주민 김모씨는 RFA에 “4월 23일 남흥청년화학공장 나프타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0여명이 숨졌다”면서 “당국은 소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후 엿새만인 29일 황급히 비료 생산공정 준공식을 했다”고 말함.

● 北…대성무역, 금광 이익분배 안해 中투자자와 분쟁(6/29, 자유아시아방송 (RFA))

- RFA는 단동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가 북한 대성 무역총회사와 평안북도 천마산의 금광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투자했다”면서 “그러나 투자가 모두 끝나고 금이 생산되는데도 중국 투자자에게 이익이 배분되지 않아 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힘.
- 중국쪽 투자자는 대성무역에 여러 차례 항의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돌아오자 ‘해결사’를 동원해 단동(丹東)에 들어온 대성무역 소유 화물트럭을 몇 대 강제 압류했고, 그 후 대성무역은 자사 화물차를 중국 쪽에 보내지 못하고 있음.
- RFA는 “중국쪽 사업자가 천마산 금광 개발에 투자한 시점은 2005년경인데, 소문으로는 전체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경제)

- 운산공구공장 현대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6/28, 중방)
- 혜산열사능 준공식, 양강도 혜산시 연봉산기술에서 진행(6/29, 중통)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6/21 현재 상반기년도 생산계획 102% 완수 및 학포탄광의 석탄생산계획 1.2배 장성 등 전국 각지 탄전들의 석탄증산 투쟁 및 생산계획 초과 달성 보도(6/30, 중통)
- 대동강기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6/29 현지진행(6/30, 중방)

다. 사회문화

● 中 연변에 北요원 대거 투입…탈북자 체포 혈안(6/28, 자유북한방송)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해외 ‘반탐(방첩)요원’을 중국 연변(延邊) 지역에 대거 투입해 탈북자 체포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선양(沈陽) 주재 통신원은 “이달 초 북한 보위부가 반탐요원 100여명을 연지(延吉)시에 보냈다”면서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시내 호텔 두 곳에 머물면서 연일 탈북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전에는 연지시 공안국에 8명 정도 북한 요원들이 상주했으나 지난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은 15명이 넘는다”면서 “작년 말 북-중 양국의 공안당국자들이 국경 봉쇄와 탈북자 단속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 요원들이 대폭 증원된 것 같다”고 덧붙임.

● 北…아리랑 공연에 ‘北·中친선 장면’ 넣는다(6/29, 조선신보)

-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2개월여 동안 진행될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 ‘아리랑’에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는 ‘북·중 친선 장면’이 새로 도입
- 북한 ‘아리랑’ 공연 국가준비위원회의 김금룡 연출실장은 “2010년도판 아리랑 공연의 특징은 ‘친선 아리랑’이라는 장면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주년이자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60주년인 올해 북·중 친선에 관한 김일성 주석의 고귀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이라고 말함.

● 北선수단, 환영행사 없이 귀국(6/30, 조선신보)

- 44년만에 진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북한대표팀이 29일 평양에 도착해 체육 분야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음.
- “남아프리카 월드컵 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 감독과 선수들이 29일 오후 평양비행장에 도착했다”면서 “마중 나온 체육 부문 관계자들이 ‘수고했다’며 위로하고 가족들이 꽃다발, 꽃무음을 건네주며 환영하자 무표정이었던 선수들이 미소를 지었다”고 전함.
- 또한 “44년만에 월드컵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의 성적은 조국 인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출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월드컵 출전의 자신감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말함.
- 또 귀환한 선수단에는 ‘조총련 3총사’로 통하는 정대세, 안영학, 량용기 세 선수와 북한팀 코치를 맡았던 재일본 조선인축구협회의 김광호 부회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내달 1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36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체육경기대회(5/17, 개막), 사리원에서 폐막(6/28, 중통)
-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회극 ‘산울림’ 공연, 자강도 희천시에서 진행(6/28, 중통)
- 제13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6/24 진행), 폐막(6/29, 중통)
- 전국도대학 종합체육경기대회(6/15~30) 폐막식, 해주경기장에서 진행(6/30,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中상인 첩보활동 감시 강화(6/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상거래로 위장한 중국인들의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해 중국 상인들에 대한 감시와 입국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RFA는 무역 일을 하는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 “북한에 드나드는 중국 상인들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가 드러나, 중앙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중국 접경 지역의 보안부와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상인이 체류지로 신고한 북한내 친척집 등을 불시 방문해 조사하고, 부재중이면 즉시 행방을 추적한다”고 전함.
- 방송은 또 “북한의 통행검사소는 중국 상인들한테서 사소한 혐의라도 잡으면 ‘까만 도장’을 찍어 곧바로 출국시킨다”면서 “이런 경우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
- 이어서 “최근 자강도 만포시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의 경우 군수산업 지역인 자강도 강계시를 오가다 첩보활동 혐의를 받았다”면서 “보위부는 이들 중국 상인의 소지품 가운데 소형녹음기가 내장된 MP3플레이어 등을 정탐행위의 증거물로 보고 있다”고 전함.

기타 (대외)

- 日 외무상의 北 위협에 대처한 美-日동맹강화 발언 관련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대미추중정책에 매여 달리려는 일본정부의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난(6/29, 중통 노동신문)
- 김영남, 6/28 콩고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29, 중통)
- 김영남, 수단 혁명절 21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29, 중통)
- 박의춘(외무상), 수단공화국 외무상에 임명된 ‘알리 아흐마드 카르티’에게 축전(6/29, 중통)
- 北 인민보안부 정치일꾼 대표단(단장:윤시환 중장),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6/29, 평방)
- ‘안근성’ 멕시코駐在 北 대사, 6/24 同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6/30, 평방)
- 최영림, 新任 핀란드 수상 ‘마리 키비니에미’에게 축전(6/30, 중통)
- 김영남, 부룬디 대통령에게 독립절 즈음 축전 발송(7/1,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핵억제력,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미국 정부의 과거 핵무기사용 검토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1969년 북한의 미국 정찰기 격추사건 당시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가 공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서 “미국이 역대적으로 조선(북한)에 대해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면서 “지난 4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조선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의 현 행정부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 정책에서는 전임자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

- 中…北 핵억제력 강화에 비핵화 강조(6/2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를 발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근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
 - 그는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을 변화시켜 더 이상 이를 격화시켜서는 안 되며 충돌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당사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주문
 - 또한, “유관 당사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함.

3 대남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유라시아지역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시 對北발언(북이 바른길로 가는 과정, 북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등) 관련 “함선 침몰사건을 조작한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며 반공화국 대결소동으로 집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 낚두리”라고 비난(6/28, 평방/역적패당의 얼토당토 않는 바른길 타령)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北 어뢰공격설, 사죄, 책임자처벌 등) 관련 실명을 거론하며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사죄와 처벌받을 자는 이○○패당”,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28, 중통·노동신문/대결미치광이의 악의에 찬 낚두리)
 - 韓·美·日 국방장관회담(6/5, 싱가포르) 개최 관련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3각 군사동맹을 완전히 실체화하고 유엔을 통한 대조선 압박기도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 선불질을 해보려는 호전적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6/28, 중방/계획적인 전쟁도발 책동)
 - 우리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태 민군합동조사단의 유엔 파견, 설명회 등 외교활동 관련 “우리(北)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세계의 공정한 여론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6/28, 평방/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에 대한 도전)
 - 외통부장관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발언(현금차단 등 美日의 효과적 對北제재 등)에 대해 “극단적인 제재소동으로 확대하며 대결전쟁소동에 날 뛰는 역적패당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持續 위협(6/30, 평방/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해치는 역적)
 - 천안함 피격사건 계기 대북심리전 재개, 서해상 韓美 연합대잠수함 훈련, PSI 훈련 등을 “남북간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도발책동”으로 비난하며 對北 심리전 재개시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의지를 단호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持續 위협(6/30, 중방/북침을 노린 심리모략)

전 재개 소동)

- 親北 단체·인사 및 각국 공산당들(러시아 공산당 연해변강좌, 베네수엘라 공산당 기관지,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등)의 천안함 피격사태 관련 對北 지지 성명·담화·시위·소개(6/30, 중방/공화국의 단호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세계의 벗들)

● 南·北…남아공월드컵서도 천안함 신경전(6/30, 연합뉴스)

- 남북한이 2010 남아공월드컵 현장에서도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1일 요하네스버그의 시티스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 남아공 정부는 자국 주재 각국 대사들을 개막식에 초청했고, 김한수 주남아공 한국대사와 안희정 주남아공 북한대사 모두 이에 응함. 외교에 따르면 당시 김 대사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북한의 안 대사가 뒤따라와 김 대사의 한쪽 팔을 움켜 잡으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요”라고 위협조로 말했다고 전해짐.

■ 기타 (대남)

- 北 판문점대표부, 6/28 韓美가 “판문점 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위반행위를 감행했다”며 인민군 측의 원칙적 입장 통지(6/28, 중통·중방·조선신보)
- 서해상 韓美 대규모 연합훈련실시 계획 등 관련 “對北 선제타격을 위한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무자비한 징벌로 침략자들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최후 승리를 안아올 것”이라고 위협 (6/29, 중통)
- 아프가니스탄 再파병 계획 관련 “미제의 침략전쟁에 사병들을 대포밥으로 섞겨 바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친미사대매국노들을 역사의 심판장에 끌어내 단호히 징벌할 것”을 주장(6/29, 중통)

5·6월

북한동향 일지

<5월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5월 01일	김정일, 러-北 예술인의 5.1절 합동음악회 관람	중통(5/1)
5월 02일	평양시내 근로자들의 체육, 유희 진행 등 전국 각지 근로자들의 5.1절 기념행사 진행	중방(5/2)
5월 03일	김정일, 中 「후진타오」 주석 초청으로 5/3~5/7 중국 비공식 방문	중통(5/7)
	강석주,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김영춘, 이명수, 장성택, 주규창, 최태복, 태중수, 현철에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시 (5/3~5/7) 수행	중통(5/7)
5월 04일	러시아 정부, 김정일에게 '조국전쟁승리(8.15광복) 65돌' 기념메달 수여식 駐北 러 대사관에서 진행	중통(5/4)
5월 05일	고고학자들, 黃北 승호군 리천리 일대에서 신석기시대 질그릇 가마터 발굴	중통(5/5)
5월 06일	김영남,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망 관련 5/6 위문전문 발송	중통(5/7)
5월 07일	김정일, 中 「후진타오」 주석에게 訪中 환대 등 謝意 표명 전문 발송	중통(5/7)
5월 08일	김정일, 경희극 '산울림' 再관람	중통(5/8)
5월 09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등 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오영」 등에게 감사전달	평방(5/9)
5월 10일	각지 농촌들, 벼모판 관리와 모내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	중통(5/10)
5월 11일	社設, '모든 힘을 모내기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題下 "모내기는 한 해 농사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며 全民 제철 모내기 완료 독려	노동신문(5/11)
5월 12일	北, 자체 기술로 '핵융합반응 성공'주장	노동신문(5/12)
5월 13일	김정일, 상서청년광산 등 '援軍美風'을 발휘한 일꾼-종업원들에게 감사전달	중방(5/13)
5월 14일	김영남, 나이지리아 대통령 新任 대통령 「군락크 에펠레 조나단」에게 축전	중방(5/15)
5월 15일	北 외무성 대변인,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北을 시리아, 이란과 함께 새로운 '악의축'으로 지목한 것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을 통해 비난하며 "北은 그 어떤 대량 살육무기전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중통(5/15)
5월 16일	김정일, 양강도 백두산선군 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도	중통(5/16)
5월 17일	김정일, 양강도 백암군 덕포지구에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감자농장과 삼지연군 여러부문 사업 현지도	중통(5/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5/1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 6월7일 평양 소집 「결정」 발표	중통(5/18)
5월 18일	김정일, 양강도 해산시 여러 부문 사업(해산 강철공장, 김정숙사범대학 등) 현지도	중통(5/18)
5월 19일	김정일, 대흥단군(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대흥단읍 등) 현지도	중통(5/19)
5월 20일	김정일,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건설장, 청진토끼종축장 현지도	중통(5/20)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5월 21일	北외무성 대변인,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미국이 우리(北)를 걸고 든 것은 北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정책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北)는 천안함 침몰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미국의 주장은 賊反荷杖”이라고 강변	중통(5/21)
5월 22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22)』 北은 “지구적 범위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김순일 주장	중통(5/22)
5월 23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찰을 위한 꺾기모임 오수영, 김희택 등 참가 下 진행	중방(5/23)
5월 24일	김영남, 인도 여객기 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	중통(5/24)
5월 25일	‘호지명 생일 120돌 기념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대동문 영화관에서 김정숙(대외문화연락 위원장), 전영진(대외문화연락총 부위원장) 등 참가 下 진행	중통(5/25)
	경희극 ‘산울림’ 5/25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공연 진행	중통(5/27)
5월 26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천안호 사건으로 최대의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題下천안함 군사도발사태 관련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들”이라며 “미국이 南당국을 내세워 꾸민 아시아판 9.11사건”이라고 주장	중통(5/26)
5월 27일	최근 평양 대동강 맥주공장(평양시에 150여개)의 발효 탱크 등 설비증설(현대화공사)로 생산능력 2배 성장, 맛과 특이한 향으로 근로자들의 청량음료로 호평	중통(5/27)
5월 28일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독일 사회민주당출신 연방의회 의원일행과 담화	중통(5/28)
5월 29일	『조국전선』 중앙총, 南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이번 6.2 지방선거는 “평화나 전쟁이나, 민주나 파쇼나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를 통한 現정권 심판’ 선동	중통(5/29)
5월 30일	北, 천안함 조사발표 관련 美-韓 ‘反北대결 규탄’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10만명 운집) 개최	중방(5/30)
5월 31일	黨, 政 간부들, 리보익(김일성 曾祖母)출생 134돌 즈음 糞에 화환 헌화	중통(5/31)

<6월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6월 01일	김정일이 평안북도에 불도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군민연환대회」, 5/31 신의주시에서 진행	중방(6/1)
6월 02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이제강(80세, 黨 제1부부장), 교통사고사망(0시45분) 訃告(黨중앙委,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名義)발표	중통(6/2) 중통(6/2)
6월 03일	김정일, 故이제강(80세, 黨 제1부부장)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6/3)
6월 04일	김영남, 국제김일성기금 이사장(조니 혼)과 담화 및 평양 출발	평방(6/4)
6월 05일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 공정 현지지도	중통(6/5)
6월 06일	김정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	중통(6/6)
6월 07일	김정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 참석	중통(6/7)
6월 08일	국방委 부위원장 장성택 승진 등 선거 결과 및 약력 소개	중통(6/8)
6월 09일	천안함 사태 관련 최근 대통령 언급(정체성 확립 및 새 세대 교육 필요성)을 시비하며 이번 “특대형 반북 모략사건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持續 협박	중통(6/9)
6월 10일	김영남, 리비아에서 미군 사기지 철폐 40돌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0)
6월 11일	김영남, 필리핀 독립 112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1)
6월 12일	김영남, 러시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2)
6월 13일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 독산동 100살 장수자 「김덕순」에게 생일상 전달	중통(6/13)
6월 14일	김정일,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공공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공공연 관람	중통(6/14)
6월 15일	농업과학원 과학자들, 농업용 살균제 개발 및 농작물 도입 결과 ‘88.1%~94.6% 살균효과입증’ 선전	중방(6/15)
6월 16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조별연맹전 북한:브라질 경기, 새벽에 진행 소식 보도	중통(6/16)
6월 17일	고고학자들의 신석기시대 출산무늬 그릇(아구리 직경 28cm×몸체직경 18.8cm×높이30cm)발굴	중통(6/17)
6월 18일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및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平北) 시찰	중통(6/18)
6월 19일	김정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6/19)
6월 20일	김정일, 평안북도 여러 부문 사업(12.5청년광산,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전국공장, 용천군 장산협동농장 등) 현지지도 김정일, 제593군부대 지휘관 강습소 시찰	중방(6/20) 중방(6/20)
6월 21일	北외여성 대변인, ‘월드컵 무단 중계’ 논란 관련 중통기자 질의답변을 통해 미국이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회피하려는 현 행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화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北) 역시 촉구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	중통(6/21)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6월 22일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즈음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복수 결의 모임,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와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진행	중통(6/22)
6월 23일	北, 訪北 한상렬 목사 환영 군중집회(6/23, 청년중앙회관) 진행	중방(6/23)
6월 23일	北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 6/23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9월 상순에 소집할 데 대하여" 발표	중통(6/26)
6월 24일	北, 교화중인 미국인(아이잘론 말리 곰즈)에게 전시법적용, 추가조치 검토	중통(6/24)
6월 25일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反美군민대회, 김기남(黨비서, 연설), 장인수(평양시 黨비서, 사회) 등 12만 여명 참가 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중통(6/25)
6월 26일	한국戰은 미국이 조선 반도를 지배하고 "北을 노예화하기 위해 南을 사족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再次 '북침설' 주장	노동신문(6/26)
6월 27일	한국戰은 철두철미 미국이 사전에 준비하여 극비에 붙인 전쟁계획에 따라 감행된 부정의의 전쟁, 침략전쟁이라고 지속적 비난	중통(6/27)
6월 28일	北, 판문점 대표부, 韓·美가 "판문점 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위반행위를 감행했다"며 인민군 측의 원칙적 입장 통지	중통(6/28)
6월 29일	정○국무총리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만찬시 對北발언(단호한 대처, 자위권 발동)을 "사건을 은폐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호전적 망발, 대결미치광이의 황당한 궤변"이라며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평방(6/29)
	北, 월드컵 축구선수들 귀환 소식 간략 보도	중방(6/29)
6월 30일	김○국방부장관(실효성, 비례성에 의거해 대응)과 김○해군참모총장(적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발언 및 美 제7함대 사령관과 의견조율, 심리전 재개 준비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섬멸적인 불 소나기로 반역패당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 무덤길을 재촉하는 가스로운 망발" 豪言	평방(6/30)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